

나의 아저씨

길거리에 넘쳐나는 혼하디혼한 아저씨들.
허름하고 한심하게 보이던 그들이, 사랑스러워 죽을 것이다.
눈물 나게 낄낄대며 보다가, 펄펄 울 것이다.

▶ 기획의도

드라마 속 주인공 남자들은 전부 능력자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와 같은 선망의 직업을 갖고 있던가,
기억력 추리력 같은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던가,
아예 현실세계의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외계에서 온 사람이던가, 시간을 갖고 노는 사람이라던가, 어떤 식으로든 능력자다.
영화로 치면, 온갖 신무기를 몸에 장착한 어벤저스 들이다.
팬티 한 장 입고 정글을 누비던 타잔은 이제 없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실제 그런 능력자들이 있었던가.
있었다고 한들, 그런 능력자들 덕분에 감동했던 적이 있었던가.
온갖 신공을 펼치는 주인공을 보면서 통쾌할 수는 있다.
그런데 감동적이었던가.

사람에게 감동하고 싶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근원에 깊게 뿌리 닿아있는 사람들.
그런 맑은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싶다.

여기 한 아저씨가 있다.
우려러 볼만한 경력도, 부러워할 만한 능력도 없다.
그저 순리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엔 아직도 아홉 살 소년의 순수성이 있고, 타성에 물들지 않은 날카로움도 있다.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따뜻함과 우직함도 있다.
‘원래 인간이란 이런 물건’이었다는 듯,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간의 매력’을 보여주는 아저씨.

그를 보면, 맑은 물에 눈과 귀를 씻은 느낌일 것이다.

▶ 관전 포인트

1. 삼형제 : 사람 보는 맛!

길거리에 흔하게 돌아다니는, 허름하고 보잘 것 없는 아저씨들.
서울 변두리에 태어나 터전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아저씨들.
막내 높은 회사에 들어가 본 적도 없이 중년으로 들어섰고,
큰형은 더 다닐 수 있는 회사에서 뇌물 먹어 잘리고, 바닥을 치는 그들의 인생사.
그러나 옆드려 끼이끼이 울다가 코가 매워 찢찢매다가도, 울다가 코가 매워 본적이 얼마만인가 추억에 빠지고. 쓰디쓴 모멸감에 울분을 삼키다가도 단골술집에서 좋은 안주가 왔다는 말에 바로 옷 챙겨 입고 술집으로 향해서는 신나게 마시고. 형제끼리 치고 박고 싸우다가도 떨어지는 첫 눈발에 어? 하고 하늘을 보는.
아주 잠깐 울고 일어나 원상복귀 되는,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은 품성들.
참치 먹는 날을 천국에 들어가는 날처럼 손꼽아 기다리는 한심한 놈들.
지옥에 떨어져도 거기서도 낄낄대고, 지옥대장한테 얻어터지고도 바락바락 개길 놈들.
중년을 잘 버텨줘야 남은 인생 그나마 안전하게 살 텐데. 남자 나이 마흔 넘으면 주접 아니면 품위로 갈린다고, 큰형과 막내는 마음 놓고 주접으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
불우한 노년을 이미 접수한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유머를 잃지 않고, 친절을 잃지 않은, 아직 말랑말랑한 중년들.
원래 ‘돈’ 외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나이가 중년인데, 이 인간들은 (주인공인 둘째 아저씨만 빼고) 다들 그지 인데다가, 그렇다고 명예가 있냐, 인맥이 있냐, 재주가 있냐...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복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행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은가.
참 주접들이다 싶은데, 그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인생의 안전은, 인생의 행복은, ‘돈, 명예, 인맥...’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
결국 그들이 사랑스러워 죽을 것이다. 이빠 죽을 것이다.

2. 아저씨와 여자에 : 묵묵하고 조용한 아저씨의 금욕미 넘치는 정신승리의 외도!

현실 엉망진창인 여자에의 좀 둘은 첫사랑!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한 번도 욕망을 선택해 본 적 없는 주인공 아저씨.
그 나이에 해야 될 것을 성실히 하면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물 흐르듯이 튀지 않게 살아왔던 아저씨.
그런 아저씨의 인생에 무모하고 거칠고 열음장처럼 차가운 여자가 들어온다.
세상에서 온기라곤 한 번도 느껴 본 적 없는 것 같은 거친 여자에.
돈을 위해서 대표이사 도준영의 사주를 받고 아저씨를 잘라내기 위해 접근했으나,

자를 빌미를 찾기 위해 그에게 심어놓은 도청 장치를 통해, 아무도 몰랐던 아저씨의 매력을 혼자만 알게 된다. 아저씨를 도청을 하면서 세상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났다. 누구도 녹일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세상 제일 거칠고 차가운 여자애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평범한 아저씨의 손에서 녹아나는 형국.

그러나 현실은 아저씨일 뿐이고, 어린 여자애일 뿐이고.

해서 설레는 만큼, 둘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질 수밖에.

묵묵하고 조용한 아저씨는 금욕미 넘치는 정신승리의 외도를 할 수밖에!

3. 구조공학 : 안전이 대세인 시대!

사람들은 아저씨가 구조기술사라고 하면 그렇게 멋진 일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의외다 싶은 눈빛들. 그러나 그 구조가 rescue가 아니고 structure라는 걸 들으면... 그럼 그렇지.

건물을 디자인 해내는 화려한 건축가와 달리, 그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들을 계산해내는 공학도.

서울시의 모든 교량이며, 초고층 건물, 터널 등의 안전도를 검사하고 보강 방법을 제시.

남들 보기엔 안전해 보이는 아저씨의 인생.

그러나 회사에서는 후배가 대표이사로 자신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상황. 뒤통수대려야 되는 형 동생 노모. 그리고 바람난 아내.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는 어린 여자애.

누수가 심한 자신의 인생을 꼭 틀어막고 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고 있는 아저씨.

모른 척, 아무렇지 않은, 그렇게 버티는 것만이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인 듯.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인생 대차게 무너졌는데도, 맘 편하게 사는 형과 동생을 보면서, 어쩌면 인생의 안전과 건물의 안전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

이 드라마에선, 현재 사람들의 제일 관심사인 건물 안전에 대해 다루면서, 인생의 안전을 대입시켜 보는 방향으로 주인공의 얘기를 풀고자 한다.

▶ 등장인물

박동훈 (49세)

1년에 500명씩 건축사 쏟아져 나올 때, 구조기술사는 깎해야 열댓 명밖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 만큼 어려운 학문이었다. 그러나 디자인이라는 화려한 세계보다는,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더 매력을 느꼈다. 건축사가 디자인하면,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밤새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절대 모험을 하지 않는 안전제일주의.

공부는 건축사보다 더 많이 해놓고 그들의 그늘에 가려 산다고 뭐라고들 하지만, 그게 마음

편했다.

성품이 그랬건 거지. 눈에 띄는 게 불편하고 나대는 재주 없는 성품.

나이가 들면서 (이미 지어진) 건물을 안전진단 하는 분야로 넘어왔다.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는 일을 하기엔 젊은 건축사들에게 나는 너무 늙었다. 부려 먹기 불편하겠지.

수많은 건물을 설계해봤으니 안전진단은 식은 죽 먹기.

건물을 딱 보면, 어디가 부실할지 단박에 감 온다.

멀쩡해 보이는 건물에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해내는 일이며, 오백년도 넘은 목조건물의 그 견고함에 감탄하게 되는 일이며, 안전진단 일도 재밌다.

남들은 한직으로 물러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재밌으니 이만하면 됐다.

대학 후배가 대표이사로 머리 위에 앉아있어도, 어차피 자리 욕심 없었으니, 이만하면 됐다.

말없던 부친이 살아생전 가끔 하던 말 ‘아무 것도 아니다’

부친의 그 말이 평생의 주문처럼 가슴에 와 박혔다. 내가 죽은 후에 아들은 나의 어떤 말을 가슴에 새길까, ‘이만하면 됐다’일 수도 있겠다... 나를 자족하며 살았는데.

아내는 나의 그 말에 차가운 얼굴을 했다.

‘그래. 넌 됐다 처라. 난 아직 아니다.’라는 제스처로 아내는 아이를 낳자마자 사시를 패스했고. 나를 두고 쪽쪽 올라갔고. 아들도 쪽쪽 잡아끌어 올렸다.

어떻게 열세 살짜리 어린 아이를 만리타향에 홀로 보낼 수 있는지, 마음이 아파 미치겠었는데.

그래, 이만하면 됐다. 아내가 돈 잘 벌어, 어린 아들을 외국 사립학교에 보내고. 이만하면 됐다. 바쁜 아내 때문에 혼자 저녁을 먹어도, 둘이 버니 이만하면 됐다.

인생 내리막길을 초고속으로 내달리고 있는 형과 동생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즐겁다고 킁킁대는 속없는 인간들이라, 고맙고 다행이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이상한 애가 날 좋아한다. 재 미쳤나보다.

들판에서 혼자 큰 것 같이 거칠고 무모한 스물 한 살짜리 어린 여자애.

날 좋아하다니, 재 제정신 아니다.

그러나 조용히 칼로 폭 찌르고 들어오는 듯한, 서늘한 그 애의 한마디 한마디에 끌린다.

저 애가 나를 안다! 내가 어디에 눈물이 나고, 어디에 마음이 고요해지는지.

나이 마흔 아홉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발견된 길가의 꽃이 된 기분. 떨린다.

미친 놈. 그만하자. 딱 여기까지. 더 떨리면 안 된다.

안전제일주의인 내 인생에 재는 폭탄이다. 멀리해야 된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핀단다. 그것도 내 대학 후배이자, 내 회사 대표이사인 놈과.

인생에 여기저기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에 평생 몰아쳐야 될 폭풍우의 양이 있다면, 이 한 계절에 왕창 퍼붓고 있는 느낌.

아내의 외도를 모른 척 하리. 그것만이 내 인생이 안전해지는 길.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술 먹고 삼형제랑 춤추다가 느닷없이 유리창에 주먹이 나간다.

야이 미친놈야!! 술집 주인누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철렁했다. 내 주먹이 내 뜻과 상관없이 돌진했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뛰지도 말고 기지개도 켜지 말자. 잔 동작에 혹 터진다.
분노든. 사랑이든.

이지안 (21세)

내가 온몸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 말 걸지 말라고.
난 어차피 3개월 계약직.
친하게 지내보려는 노력 같은 거 하지 마라. 니들 얘기,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다.
여섯 살에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지면서, 꿈, 계획, 희망... 이딴 단어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 버는 족족 빚 갚는다. 그것도 사채. 열심히 갚는다. 죽어라 갚는다.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산다. 닥치는 대로 일하고, 닥치는 대로 먹는다.
내 인생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
다들 도와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뒤로는 다들 도망간다. 욕하며 도망간다.
네 번까지 착한 인간들은 부지기수.
그러니 말 걸지 말고 가라.
선량해 보이고 싶은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불행을 이용하지 말고!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다.
날 드럽게 못 살게 구는 사채업자 놈한테 벗어날 기회.
대표이사의 약점을 잡았다. 대표이사는 박동훈의 아내와 불륜관계.
아저씨 박동훈을 회사에서 쫓고 새도 모르게 잘라내고 돈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접근했고. 내가 자기를 좋아해서 접근했다고 착각하든 말든 상관없고. 잘라낼 단서를 찾기 위해 아저씨를 도청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뉘지.
깊이 알면 정 떨어지는 인간. 깊이 알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아저씨 후자였다.
길거리에 널린 그저 그런 아저씨인줄 알았는데, 그의 뜨끈함과 조용한 용기에 놀랐고, 여전히 때 묻지 않은 소년의 감성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도청을 하면서 세상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났다. 이런 인간이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하늘에 감사했다. 사랑스런 인간을 처음 봤다. 내 마음까지 뜨거워졌다. 도청의 시간은 나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아, 이 아저씨 인생이 망가지는 걸 못 보겠다.
지켜주고 싶다.
아무도 박동훈 건들지 마!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망가뜨려도 내가 망가뜨리고, 살려도 내가 살릴 거야!

강윤희 (47세. 동훈의 아내)

사람 됨됨이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오래 사귀었고. 결혼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래서

결혼해 봤더니 이 남자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빨리 보였고. 해서 애 낳자마자 시어머니께 맡기고 애 돌 되던 해에 사법고시 패스.

남편은 뭐하냐는 질문에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면, 뭔가 가우뚱하는 사람들 눈빛.

남자는 바람 안 피고, 성격 좋으면 90점이라고, 난 90점짜리 남편이랑 산다고 웃고 떠들고 다니지만, 여자 아무리 잘 나봤자 남편 평판 밑이라고, 나는 그저 평범한 만년부장의 아내.

그렇다고 남편을 다그치느냐. 아니. 절대.

아들이 유학 간 후에도 혼자 모형 헬기를 날리는 남편을 보고 속이 터져 처음으로 언성 높여 말했지. 애냐고, 그만 하라고.

그때 남편이 한 말.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 밖에 없다고.

더 이상 아무 말 안했어. 째했냐고? 아니.

그때 그냥 그 사람을 포기하기로 했지.

자기 마음을 쏟을만한 사랑하는 상대를 찾아 헤매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의 얼굴. 어딘가로 망명을 꿈꾸는 것 같았던 얼굴. 여기는 자기 세상이 아니라는 듯. 잘못 왔다는 듯.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족에 대한 의무는 성실하게 다 하는 답답한 인간. 내가 별 짓을 다 해도 나로 인해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다. 산으로 들어가 득도했어야 하는 인간을 내가 억지로 붙들고 살고 있는 죄지.

아. 지겹다. 내가 바람 날만 했다고 이유 찾는 거.

그래. 그냥 도준영이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치자.

간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만난 후배 도준영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거침이 없었고, 헤어지고 나와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나 재한테 빠졌다. 재가 좋아진다고 싶었고, 그리고 고맙게도 그 애도 나를 좋아해줬고. 남편 회사의 대표이사인 그 놈과의 연애는 007작전을 방불케 했고. 그래서 더욱 감질맛 나고 미치겠고.

사랑 한 두 번 해보는 거 아니고, 어느 순간에 혹 들어오듯, 어느 순간에 혹 나갈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있었는데, 느닷없이 헤어지자고. 난 아직 안 끝났는데 헤어지자고.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나 너 망하게 할 거라고. 이를 박박 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보고 싶어서 달려가고, 다시 더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랬는데... 그랬는데...

남편이 다 알고 조용히 헤어지라고 했다고.

나를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다고.

자기가 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고, 조용히 돌려보내라고 했다고.

으악--!!

나 왜 우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바닥을 기며 우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눈물콧물 흘려가며 우는 거야?

몰랐어. 만약에 남편이 안다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몰랐어. 내가 이렇게 울게 될지 몰랐어. 근데 나 왜 우니? 왜. 왜.

도준영 (45세. 대표이사)

그저 같은 집구석에서 태어나 오로지 성공을 향해 달려왔다. 그래서 나이 마흔 셋에 대표이사

자리에 앉았다. 여기 앉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출신성분을 중요시 하는, 지들만의 리그를 하고 싶었던 그들에게 나는 들보잡. 인정해주지 않았고, 꼴같잖아 했고, 어떻게든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들이었다. 일가친척 하나 없는 회장은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고, 회장의 지분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회사의 주인이 결정 나는 판. 그리고 석 달 후면 대표이사 재신임이다. 반드시 재신임 돼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회사의 주인이 돼야 한다.

재신임을 막으려는 상대파들은 내 흠집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이런 판에 회사 직원이자, 대학 선배인 박동훈의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게 들통 나면 난 끝장.

그럼에도 윤희 선배와 헤어지지 못하는 건, 윤희 선배는 ‘내가 잡을 수 있는 패 중에’ 최고의 패다. 로얄 패밀리 여자와 결혼해봤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로얄 패밀리의 혼외 자식과. 내 수준에서 적통과의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 혼외 자식과의 결혼생활에서도 당한 은근한 멸시. 윤희 선배는 모든 걸 다 갖추고도 집안은 평범했고, 인간은 대차고 따듯했다. 내 수준에 더 좋은 여자는 없다.

그러나 안다.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패는, 이지안이라는 걸.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다. 난 대표이사고 그 앤 보잘것없는 계약직이지만, 세상에 대한 증오로 뭉쳐진 패배자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밑바닥까지 훤히 안다는 걸. 그래서 끌리고, 그래서 밉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왜 죄다 저 등신 같은 박동훈한테 붙어있는 건지.

내가 어금니 딱 깨물고 성취해내려는 것도, 저 인간은 속 한 번 보고는 별 매력 없다는 듯이 가버리고. 왜 늘 저 인간한테 지는 느낌일까.

그런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지안이 그랬다.

“사람은 능력에 반하지 않아요. 성품에 반하지.”

이 기지배가 내 얼굴에 대놓고 침 뱉었다.

억울하다. 질 수 없다.

난 박동훈 너의 바닥을 봐야겠다.

박상훈 (50대 초반. 동훈의 형)

췌 췌 넘어가니 몸이성한 데가 없다.

이는 흔들흔들. 오줌은 시원하게 나오는 적이 없고. 허리는 늘 빠끗.

27년 다닌 회사에서 잘리고, 장사 두 번 말아먹으면서 있는 돈 다 날리고, 몸까지 여기저기 고장 나면서... 인생 내리막길을 신나게 내달리고 있는 중.

울면 뭐하나. 어차피 망조 들린 인생, 징징대지 말고 신나게 망가져보자.

여전히 술은 맛나고, 평생 술값 책임지겠다는 동생 놈에, 나 심심하지 않게 들러붙어 구박해주는 동생 놈에, 이런 놈이 둘씩이나 옆에 있으니 살만하지 않은가. 욕은 해대지만 삼시세끼 뜨신 밥해주시는 노모도 계시니 밥 굶을 일 없고.

골칫덩이가 있다면 딱 하나. 지랄 맞은 여편네.

평생 돈 벌어다 바친 공로는 없다.

현재 돈을 벌지 못하는 죄만 클 뿐.

매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악약대는 집사람을 피해 노모 집에 거들어 와 있지만, 그래도 이혼은 안 한다. 나 돈 없을 거고, 아플 거고, 엄마 곧 죽을 거고, 동생 놈도 결혼할 거고,

그러니 집사람 화 좀 풀리면, 내가 월 백이라도 꾸준히 버는 거 보면, 다시 합칠 거다. 늙어 폐지를 주워도 돌이면 그래도 견딜 만 할 거고... 다시 합치기 전까지 바람 이빠이 펴보는 거고. 으하하하. 신난다.

근데 왜 꼭 다급한 순간에 허리는 말뼉을 피는 걸까.

허리가 빠듯할 때는 악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굳는다. 척추에 칼날이 박혀있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큰 사단 날 것 같아 숨도 쉬지 않고 서 있어야 하는데, 꼭 그럴 때 집사람은 뺨이 돌아서 날 잡으러 오고, 토끼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그 구박을 다 받아야 되니... 업보라 생각하자.

돈이 생기는 족족 오만원짜리로 바꿔서 방바닥 장판 밑에 몰래 깔고 있다. 신용불량자라 통장도 만들지 못하고, 돈이 쌓이는 걸 보는 재미도 있다. 이렇게 두 평 남짓한 방에 오만원을 다 깔면 이천만원이다. 이걸로 뭐 할거냐고? 우리 삼형제, 고가의 검은 슈트를 맞춰 입고, 검은 라이방을 끼고, 검은 벤츠를 타고, 동해 바다가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폼 나게 일주일을 보내는 것.

인생이 곤두박질치면서 조용히 생각해봤다. 내 인생은 이렇게 맥없이 저무는 걸까.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과연 이루어질까. 내 꿈이 뭐였는가. 꿈이 있어본 적이 있었나. 그래. 한 번은, 인생에 적어도 일주일은 영화처럼 살아보자. 일단 이걸로 꿈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실험해보고, 이루어진다 싶으면, 더 원대한 꿈을 향해 매진해보리! 벤츠는 렌트한다 치고, 옷은 맞춰 입고, 호텔 스위트룸 대충 가격 때려보니, 이천만원이면 할 수 있다.

자, 일단 가 보자!

우리 삼형제, 검은 슈트, 검은 라이방, 검은 벤츠 타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 크크크. 생각만 해도 멋지다!

조애련 (50세. 박상훈의 아내)

여자 나이 오십. 가장 돈 많이 필요한 나이에 그지 됐다.

얼굴도 몸도 빼박 중년이라 거울보기도 싫어지는 타이밍인데, 이럴 때 돈 많은 중년들은 젊음 유지 보다는 고가의 명품으로 품위 유지에 신경 쓰는 쪽으로 넘어가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그저 속수무책으로 늙고 있다.

남편이란 인간은 다 망해먹고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매일 형제들하고 술 마시고 킁킁. 죽여 버리고 싶다. 매일 날아오는 독촉장에 난 하루에 한 번씩 혈압이 오르는데!

저 징글징글한 삼형제. 니들 사귀지? 사귀지 않고서야 그렇게 매일 만날 순 없어.

인생의 1순위가 와이프가 아닌 놈들 치고 말년에 팬찮은 놈 못 봤다. 등신들. 와이프한테 목숨 걸고 들러붙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 셋이 잘 살아봐라. 난 이제 내 손으로 벌어서 혼자 짹짹하게 살아볼 테니! 니들 셋이 잘 살아봐라!

박기훈 (40대 초반. 박동훈의 동생)

삼형제중 제일 인물 현하고, 젊고, 아직 여자들에게 인기 있고.

자기가 먹히는 거 뻔히 알고, 그걸 이용할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돈 있어 본 적 없고, 나 돈 없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 빌붙는 거 전혀 민망하지 않고, 유쾌한 사람은 돈 없어도 어디서나 환영 받는 법. 난 팔십 먹어서도 이려고 살 거야. 형들이나 혼자 늙는 게 안스럽지, 나 같이만 늙어봐. 에브리데이 해피데이야. 난 천박한 걸 사랑해. 천박한 나도 사랑하고.

스무 살에 심심풀이로 대충 찍은 독립영화로 칸느까지 갔다 오면서 영화계의 빛나는 샛별이 되었다. 이것이 나의 길이었나 보다 뒤늦게 사명감을 불태웠는데. 첫꽃발이 개꽃발이라고 20년째 영화감독 데뷔 중. 난다긴다하는 감독들 밑에서 조연출만 수십 번.

그래도 빛나는 한 때가 있던 놈은 희망차다. 기죽지 않는다. 팔아먹을 과거의 영광이 있으니. 오래 공 들린 시나리오를 선배감독한테 넘겨놨는데, 그 선배가 보자길래 들뜬 마음을 안고 나갔는데, 니가 쓴 건 모르겠고, 이번에 지꺼 들어가는데 조연출 하라고. 연봉 오백에.

형. 우리 다신 보지 말자. 그냥 보지 말자면, 또 볼 거 같으니까, 형 한 대만 맞자. 나만큼 일 잘하는 놈 없어서 형은 나 또 부를 거고, 이 모욕을 당하고 난 돈이 아쉬워서 또 올 거고. 우리 그러지 말자. 나한테 한 대 맞고, 우리 만나지 말자.

그렇게 대차게 주먹을 날려서, 당분간 그쪽 세계에 발들이기도 힘든 상황.

그러다가 단골술집 '정희네'서 손님들이 킵 해놓은 양주병들 사이에, '유라'라고 써진, 먼지가 뿌얇게 쌓인 양주병을 본다. 매정한 년. 여기에 남긴 술이 있다는 걸 잊은 걸까. 아니면 이 술을 버려도 좋을 만큼 나한테 미련이 없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목발을 짚고 술집에 나타났다. “누가 내 술 먹었어? 너지? 먹여줘, 재워줘, 용돈 줘... 그랬더니 딱 년이랑 바람피더니. 이젠 내가 킵 해놓은 술까지 훔쳐 먹어?” 싸울 때 용감하게 내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쑈서 박던 여자는, 목발을 짚고도 여전히 용감한 분위기로 나타났다.

최유라 (30대 후반. 박기훈의 애인)

그 놈하고 십년 만났다. 그는 백수였지만 난 교사였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은 없었다.

그 놈의 모든 게 좋다. 성격. 외모. 유머. 다.

근데 돈이 없다는 거.

그래도 상관없다. 빛나던 한 때가 있던 놈은 엉망진창인 현재도 희망적으로 보이니까.

대단한 놈이 될 거라 생각하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연애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바람을 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알게 개망신 주고. 형들한테도 형수들한테도 전화해 엉엉 울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 자식 때문에 놀지 못했던 거 벌충이라도 하듯이 미친 듯이 놀며 살았다.

그러다가 교통사고 당해 육개월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다니던 학교는 휴직계 내고 재활치료 중.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이 찢어지게 아프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 목발 짚고 다니고.

집안의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망가지고 있다. 주방 전등은 깜빡이고, 냉장고 아래는 물이 흐르고. 인간도 망가지고, 집구석도 망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게 그 놈 때문이다.

목발을 짚고도 용감하게 동네 사람들 휘어잡고 다니면서도, 집에 들어와 혼자 남겨지면 괴로워 허공에 대고 소리친다.

“왜 그랬어? 그때! 왜 가만있었어? 너 바람 안 뺐잖아!”

십년 수발들고도 짝이 안 보이는데. 이걸 아니다 싶은데.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 타이밍에 그 자식 좋다고 들러붙는 여자 봤고. 옳다구나. 욕에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 다 하고. 그렇게 헤어졌다. 바람을 피지 않았다는 걸 안다. 상대 여자도 와서 말해줬다. 그런 일 없었다고. 그냥 덮어씌우고 싶었다. 헤어지고 싶었다.

근데 정말 괴로웠던 건... 그 놈이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침묵 했다는 것. 평소 그 놈 성격이라면 길길이 날 뛰며 변명했어야 하는데. 그 놈도 나랑 헤어지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침묵했던 거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내내 그게 날 미치게 했다.

어떻게. 어떻게 나랑 헤어질 생각을 했어? 개자식.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변요순 (76세. 삼형제의 모친)

그 어렵다는 대학 삼형제가 줄줄이 턱턱 붙으면서 남들 못 낳는 아들 나만 셋씩이나 낳은 줄 알고 기고만장 했었지. 행여나 사람들 시기 질투에 자식새끼들 될 일도 안 될까 싶어 잘난 척 안하려고 무진장 애썼지. 쌍놈의 시키들. 이 따위로 인생 그지 같이 안 풀릴 줄 누가 알았나. 품을 떠나 본 적 없이 늙은 에미한테 삼시세끼 밥 얻어 처먹는 막내 놈. 저 놈만 치우면 된다고 싶었는데, 큰놈은 늘그막에 빈털터리 돼서 지 여편네한테 쫓겨나 다시 집구석에 겨들어오고.

이 인간들 이러다 추레하게 혼자 늙을 까봐 걱정.

별거 중인 큰 아들은 어떻게든 다시 합치게 하려고 며느리 비위 맞추고.

막내아들 장가보내려고 만나는 사람들 마다 중신 자리 없는지 캐묻고.

죽기 전에 저것들 제 짝이랑 우애 좋게 사는 꼴을 보고 죽어야 눈이 감길 텐데.

근데 이것들 하는 짓을 보아하니, 됐다 싶다. 이젠 열 뻔쳐 건사 못하겠다.

동훈이 너. 재들이랑 어울리지 마. 물들어. 재들이랑 의절하고 너만이라도 똑바로 살아.

나도 이제 니들 붙잡고 씨름하며 살지 않을란다.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내 나이. 잘 죽고 싶다. 상냥한 여자, 친절할 여자로 살다 죽고 싶다. 사내놈 셋 키우면서 그거 못 해봤다. 맨날 악악대고 소리 지르고. 나 이제 그런 여자 안 할란다. 상냥한 여자, 친절할 여자, 그런 여자 할란다.

겸덕 (49세. 동훈의 친구)

동훈이랑 문자하고 통화만 하는 친구.

오가는 대화는 짧지만 선문답 같이 깊이가 있고 정서가 있다. 수다스럽지 않은 동훈의 진짜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화들. 오래된 불안 친구 같은 느낌. 지방에 사는 이 친구가 간만에 서울에 올라왔다고 한 번 보자고. 반갑게 달려 나가는데, 스님.

겸덕은 출가한 동훈의 친구다. 삼형제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앞날이 보장된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나, 민주화 운동으로 수배령이 떨어져 3년의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잡혀 수감 생활을 했다.

수컷들의 세계에서 위로 올라가든 밑에 깔리든, 그들의 스토리는 모두 ‘거꾸로 매달려도 이승이 좋다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뿐. 그것을 일찍 터득한 친구는 미련 없이 인간사를 등지고 산

으로 들어갔다. 동훈은 가끔씩 그가 있는 절에 찾아간다.

정희 (49세. '정희네' 술집 주인)

삼형제가 제 집처럼 드나드는 동네 술집 주인.

삼형제와 같이 한 동네서 나고 자란 인물.

기괴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진한 화장. 부스스하게 부풀린 머리. 손톱은 형형색색. 전체적으로 천박한 분위기. 한때 노래도 했었고, 춤도 배웠고. 안주는 또 후딱 기깔 나게 만들어 내놓고.

어느 날은 등이 혹 파진 옷을 입어서, 들어오는 손님마다 놀래 키고. “오천원이라길래 샀어.”

밤이 돼 손님들과 같이 취해서 깔깔거리는 넓은 등쪽에는 ‘낙서금지’라고 써있고.

대낮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훈에게 뜬금없이 전화해서, “제주에서 뿔소라 올라왔어. 와.”

좋은 안주 들어오는 날엔 손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한다.

이렇게 기이하고 유쾌한 여자가 또 있을까. 오늘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도 이 가게에 들어오면 언제 죽으려고 했는지 잊고 금세 낄낄댄다.

그런데 가끔 못 알아볼 정도로 후줄근하게 하고 다닐 때가 있다. 화장하고 옷 입고 하는, 꾸밈 에너지도 없는 듯한, 빠데리 아웃인 듯한 백지장 같은 분위기 일 때가 있다.

한참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나 이제 무릎이 아파. 짜증이 나. 그래서 눈물이 나.”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할 때도 있다. “미치지만 말자... 미치지만 말자...”

어느 날, 본심을 말한다.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놈. 딱 한 놈만 있으면 된다 싶은데... 그 한 놈이 없다.”

모든 미친 짓의 근원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갈증.

하나가 없다. 하나가 없다...

늑어가니, 쫓아서 보다도, 그 하나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진다.

혼자 죽고 싶지 않아!!

심심해서 못 살겠어!!

어느 날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 입고 산에 간다. 그리고 그 스님을 만난다.

만물에 연민을 가지라는 법문을 잘 듣다가, 느닷없이 반말.

“너 나는 안 불쌍하냐? 염소새끼 망아지새끼는 불쌍하고 나는 안 불쌍하냐? 풀떼기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서 나는 왜 안 사랑해? 너 여기서 득도 못해. 나 같이 지랄 맞은 여편네랑 살 아봐야 득도하지, 이런 산골에 처박혀서 득도 못해. 내가 여기 확 다 불 질러버리기 전에 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끼이끼이 울며, 개새끼들! 어떻게 한 놈이 없어! 소리치고.

젊은 시절 둘은 연인이었다.

동훈은 두 사람의 아픔을 알면서 모른 척. 자기 여자를 지켜봐주지 못하는 친구의 부채감을 덜어주기 위해 정희 옆에서 모르는 척 도와주고...

가게에 딸린 코딱지만한 방을 청소하기 싫어 30분째 쪼그려 앉아 방을 노려보고 있는 정희를 보고는, 동훈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청소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지쳐 화나는 정희의 속내를 알기에 알아서 묵묵히 움직이는 동훈...

이광일

지안과 어려서 한 동네 살던 놈. 지안이 때문에 광일의 아버지가 죽었고, 그 뒤로 지안에 대한 증오로 뭉쳐 사는 놈. 지안을 괴롭히는 게 인생의 목적인 놈.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지안을 위해 대신 위험을 감수한다. 나 애 이렇게 좋아했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못살게 굴었을까? 니가 날 안 봐주니까. 니 옆에 있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니가 날 보게 만들 방법은 널 괴롭히는 것 밖에 없었으니까.

송기범

지안의 오래된 친구. 히끼꼬모리. 24시간 게임만 하는 아이. 컴퓨터에 능해 지안이가 원하는 회사 사람들의 정보를 다 해킹해서 준다. 홈페이지 조작도 원하면 언제든지.

춘대

회사 청소부 할아버지.

춘대와 단둘이 찍은 지안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으로 보아, 둘이 가까운 친인척일 것이라고 보이나, 사실은 되게 이상한 사이.

지안의 엄마는 여기저기 돈을 꾸고 도망갔다. 제 딸년의 졸업식에는 나타나겠지 싶어, 빗쟁이들이 지안의 졸업식에 조용히 몰려들었다. 춘대도 빗쟁이 중의 한 명이었다.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알 테고, 그러면 졸업식에 딸년 혼자 일 테니 오겠지, 오겠지... 그러나 지안의 엄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독한 년이라고 다들 욕하고 돌아서는데. 춘대만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졸업식에 무표정하게 홀로 서 있는 지안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해서 꽃을 사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자장면을 사주었다. 엄마와 잘 아는 사이라고 둘러댔지만, 지안은 대뜸 물었다.

“아저씨는 얼마 꺾었어요?”

그 뒤로 쪽 이어지는 관계.

장희장

말단 여직원부터 청소부까지 그들의 가정사까지 파악하고 일일이 챙기고,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고, 허허거리며 동네 할아버지처럼 인심 좋아 보이나, 그 속을 알 수 없는 인물.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큰 기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선 인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젊은 시절 자신을 상대해주지도 않던 왕상무를 끌어들여, 그의 인맥 덕에 발을 넓히고 사업을 여기까지 확장했다. 그런데 대놓고 말은 안했지만 왕상무는 자기 회사인양 굴었고, 그 꼴을 봐 줄 수 없었던 차에 도준영이 찾아왔고, 해서 대표이사로 기용. 도준영이 왕상무를 아작 내놓을 줄 알았더니, 5년간 팽팽한 둘의 힘의 균형은 깨진 적이 없으니. 이제 그 균형을 자신의 손으로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시점.

동훈에게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왕상무

뺏속까지 진골인 남자.

박상무

왕상무의 오른팔. 서열을 대단히 중시하는 사람. 독사 같은 인물. 그런데 아저씨 박동훈만큼은 이빠라한다. 자신을 치고 올라 올 리 없는 안전한 놈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물 먹고 지방으로 쫓겨난 이유가 지안이라는 여자애 때문이고, 이 여자애가 동훈과 묘한 사이라는 걸 알고는, 동훈에게도 독사가 되기로 한다.

윤상무

도준영의 오른팔. 욕심만 많아서 영민하지도 않고.

▶ 줄거리

*1

철도 모르고, 진작 죽었어야 하는 매미 한마리가 느닷없이 사무실에 날아 들어와 난장판. 동훈은 어떻게든 잘 잡아서 밖으로 내 보내주려는데, 새파랗게 어린,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지안이, 매미를 수첩으로 내려쳐 죽인다. 동훈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속으로 삼키는 말. ‘매미는 죽이기엔 좀 크지 않나?’

그러다가 근무 시간에 판짓 한다고 윤상무한테 욕이나 먹고. 나이 먹어 들을 잔소리가 아닌데. 그래도 마음 다친 거 티내지 않고 부하들과 시시껄렁한 농담 주고받으며 퇴근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대표이사 도준영에게 깍듯이 머리를 조아린다. 대학 후배 놈. 인사도 안 받는다. 심호흡을 한다.

형(상훈)은 직장에서 정리해고 되고, 장사 몇 번 말아먹고 별거 상태에 들어가, 노모의 품으로 들어와 있고. 동생(기훈)은 15년째 영화판에서 데뷔도 못한 조감독. 키워 내보냈던 아들놈들이 다 늙어 다시 노모의 집으로 들어와 얹혀사는 상황. 벼룩의 간을 내먹지. 노모는 동훈에게 ‘너까지 이 집구석에 들어오는 날엔 나 죽는 날’이라고.

땡전 한 푼 없는 형이 딸내미 결혼식에 망신당하지나 않을까 싶어, 혼수비로 한 달 전에 오백을 찢러주고, 또 예식장에서 푼돈 안 날까봐 걱정돼 백을 찢러줬는데, 이 정신 못 차린 형이 동생 놈과 짜고 축의금 봉투를 몰래 빼돌리다가 형수한테 걸려서 개망신 당하고, 폐백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

삼형제가 허름한 노모의 집에 둘러앉아 탕수육에 소주잔을 기울이는데, 술 취한 형이 동훈에게 비장하게 말한다. 넌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불쌍한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화환 하나라도 박혀 있고, 썰렁하지 않게 문상객 채우려면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동생도 거든다. 작은형은 우리 아저씨들의 로망이라고. 명함을 갖고 있고, 사원증을 목에 걸고, 양복을 입는 남자. 삼박자를 갖춘 완벽한 중년 남자.

그러나 동훈은 회사에서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노모는 회사로 동훈을 찾아와 형이 다시 일할 수 있게 조그만 가게라도 차려주자고. 그래도 니가 제일 사정이 낫지 않냐고. 그러나 돈이 없다. 나이 들어 이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노모가 안 됐어서 퇴직금 미리 땡겨 받아 번두리에 일억짜리 허름한 빌라 하나 마련해주고는 돈 나올 구멍이 말라 버렸다. 아내한테 말하기는 염치없고. 혼자서 아들 외국 유학까지 보내고 있는데. 자신의 벌이로는 감당도 안 되는 사립학교에.

인생의 별 다른 낙이 없고, 그래도 술이 좀 들어가면 뜨끈해지는 게 살만하다 싶은데, 돈 없다고 노모를 돌려보내고 나서는 술도 안 들어간다.

그런데 출근해서 쿼서비스 배달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은 봉투. 보낸 이는 없고 딸랑 이름 하나 '박동훈'이라고 써진 봉투. 열어봤더니 메모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오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철렁해서 메모지를 들추고 봤더니 50만원짜리 상품권이 두둑. 오천? 평생 한 번도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동훈. 씨씨티비 때문에 진땀이 난다. 서류를 서랍에 넣는 척 하면서 봉투를 넣어두고, 스윽 뒤돌아 둘러보는데 지안과 눈이 딱 마주친다. 썬그라스 낀 저 여자애가 자판을 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날 보는 건가? 모르겠다.

화장실도 안 가고 자리를 뜨지 못한다.

다들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랍에 든 봉투를 챙기려고 하는데, 지안이 퇴근을 안 한다. 그냥 슬쩍 봉투를 챙겨보자 싶어 조용히 서랍을 잡아 빼는데, 지안이 옆으로 훅 다가오고, 그 바람에 서랍이 닫히고. 동훈은 심장이 내려앉는데, 지안은 밥 사달란다.

우린 그런 사이 아닌데. 생전 누구한테도 말 걸지 않았던 여자애인데.

해서 밥 사주고 일어나려는데 술까지 사달란다.

같이 술 마시는데,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쩔 그렇게 되바라지게 하는지. 찬바람 뽕뽕 불면서. 갖고 노나 이게. 사람 신경 쓰이게 한 겨울에 발목 흰히 드러나게 짧은 양말은 신고.

술까지 사주고 밤늦게 다시 회사에 와서 보면, 로비의 불은 다 꺼져 있고. 올라가려니 뻘히 보고 있는 청원경찰들 눈치 보이고, 돌아가는 씨씨티비 눈치 보이고. 어쩔 수 없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와 보면 돈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조용히 혼비백산하는 동훈. 여기저기 뒤지는데 없다. 그러다가 문득 지안이 생각난다. 9시가 넘었는데도 출근을 안했다. 그 애가 흠뻑! 들고 날랐다! 어젯밤 술 사달라, 밥 사달라 했을 때부터 이상했는데. 그런데 감

사실에서 수사가 들어온다. 익명의 메일로 누군가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온 상황. 다리가 풀린다. 씨씨티비에는 퀵서비스한테 봉투를 건네받는 자신이 딱 찍혔는데, 그 돈이 있어야 '어디서 온 건지 몰라 그냥 받아뒀던 것뿐이다' 변명이라도 할 텐데. 그 돈은 없고. 꼼짝없이 잘리게 생긴 판. 당황하며 감사실 직원들에 둘러싸여 끌려가는데...

그때! 뒤늦게 출근해 들어오는 지안.

동훈은 끌려가면서 지안을 돌아본다. 그리고 용기 내 불러본다.

“이지안씨!”

그러나 눈도 마주치지 않는 여자애.

사실 지안이 훔친 게 맞다.

요양원에 맡겼던 병든 할머니는 돈이 밀려 쫓겨나기 직전이고. 밀린 돈을 감당할 수 없어 야밤에 몰래 할머니를 빼와 단칸방에 모셨으나 매일 찾아와 못살게 구는 광일이라는 놈 때문에 안위를 위협받는 상황. 광일은 지안이가 평생 천팔백은 갚지도 못하고 자기한테 이자만 갚다 바치느라 허덕이다가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질질 찢으면 좋겠다고.

“너 나 좋아하지? 내 빚까지 사서 나 쫓아다니고. 복수라는 건 개뽕이야. 그지?”

그 말에 다다다 발길질에 주먹질.

시퍼런 눈덩이 가리려고 사무실에서 썬그라스 끼고 일하는데, 퀵서비스로 봉투를 받은 아저씨의 뒤통수가 긴장한 걸 봤다. 뒤통수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인지 뻔히 보인다. 없이 산 애들의 특징. 기운을 읽는 축이 뛰어나고, 눈치가 빠르다.

저 돈을 훔쳐내 광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리.

어차피 뇌물이라 잃어버려도 신고도 못하는 돈.

돈을 가지고 퇴근하려는 동훈을 막기 위해, 뜯금없이 밥 사달라 술 사달라 했고.

어두운 술집에서 썬그라스 끼고 있는 어린 여자애랑 술 마시는 게 부담스러웠던지 동훈은 썬그라스를 벗었으면 하는 말을 했고, 해서 썬그라스를 벗어 맞은 눈을 보여줬더니 못 본 척 고개 돌리는 동훈. 그렇게 술 마시며 시간을 끌어 다시 돈 봉투를 가지러 회사에 가기엔 늦은 시간을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지안이 가서 그 돈 봉투를 훔쳐 내왔다.

물론 뒤탈 없이 씨씨티비는 5분간 작동이 안 되게 했고.

청소부 할아버지 춘대에게 부탁해서.

다음날 그걸 들고 광일을 찾아갔으나, 광일은 훔친 거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고, 지안을 괴롭히는 게 목적인 광일은 경찰서에 신고해서 지안을 절도죄로 콩밥 먹이려고 들었다. 또 다시 교도소에 갈 수는 없다. 상황을 돌려놔야 했다. 봉투 겉봉에 써진 '박동훈'이라는 이름까지 봤으니, 광일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시내에서 '오천만원 상품권이 든 봉투를 잃어버린 박동훈'을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였다.

해서 지안은 다시 그 돈을 들고튀었고...

사무실로 올 수 밖에.

사무실에 와서 보니 동훈은 뇌물 수수 혐의로 감사실로 끌려가고 있었고.

지안의 이름을 불렀다. 애타게.

“이지안씨!”

모른 척 했다.

돈 봉투를 들고 청소부 할아버지 춘대를 찾아갔다.

춘대는 오천이 든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고.

춘대는 그대로 쓰레기통째 끌고 청원경찰에게 가서 이런 게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고.

*2

하루 종일 감사실에서 취조를 받은 동훈은 초주검이 돼서, 출입증도 뺏기고 핸드폰도 뺏긴 채로 회사에서 쫓겨난다. 집에 가 계시라고. 당분간 수사는 계속 될 상황. 지안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묻고 싶는데, 감사실 직원은 현관까지 배웅하겠다고.

회사 근처에 숨어 있다가 퇴근하는 지안을 기다렸다가 뒤를 쫓고. 간신히 전철 안에서 대면하게 되는데, 그 돈의 행방에 대해 묻자 지안은 어떤 표정 변화도 없다.

“맞지 너?”

대답이 없다. 맞다!

“어딤어 그 돈? 어딤냐고?”

“버렸는데요.”

“어디다?”

“쓰레기통에.”

흠친 건 맞고. 버렸다는 건 거짓말이고. 돌아버린다. 내려서 얘기하자고 잡아끄는데, 높은 남자가 싫다는 어린 여자애한테 치대는 꼴로 봤는지 건장한 남자가 동훈을 밖으로 내동댕이쳐버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널 모레 전에 이 무슨 개망신.

회사 잘리게 생겼는데. 애가 타는데. 그 애의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해서 형과 동생을 불러내 지안을 봤던 곳에서 밤새 서성인다.

두 번 봤었다. 한 번은 같은 전철역에서 내렸고, 또 한 번은 동네 마트에서 봤었다. 이 동네 사는 거다. 동생 기훈이가 형사 친구한테 이지안을 찾아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 동네에 이지안이란 사람은 세 살 짜리 밖에 없다고. 봤는데 분명히. 이 동네 사는 게 확실한데.

밤을 꼴딱 새고 회사 앞에 숨어서 출근하는 지안을 기다렸다가 따라 붙으며 어울리지 않게 험박한다. ‘밤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졌다,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씨씨티비 확인해달라고 감사실에 말하겠다, 그러니 순순히 내 놓는 게 좋을 거다...’

그러나 지안을 콧방귀도 끼지 않고 가버리고.

사실 회사 내에선 보이지 않은 전쟁이 있다.

도준영 대표의 재신임이 두어 달 남은 상황. 임원진의 표는 정확히 5:5로 갈라져 팽팽한 기싸움 중. 양쪽에선 한 명이라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개국공신에 속하는 왕상무와 그의 오른팔인 ‘박동운’ 상무(이하 박상무)는 주제가 안 되는 놈이 대표이사로 지들 머리 위에 앉아있다는 생각에 울분에 차, 어떻게든 도준영을 끌어내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도준영의 흠이 될 만한 모든 걸 캐고 있는 상황.

도준영 입장에서 제일 독사 같은 박상무만 사라져 주면 일이 수월할 것 같은데...

그 의중을 캐취한 윤상무가 충성을 보인답시고 일을 벌여놓은 게, 박상무에게 오천을 보내놓고, 뇌물 수수 혐의로 잘라버리는 거였는데, 중간책의 실수로 이름이 비슷한 ‘박동훈’에게 봉

투가 전달된 것. 탄 데로 간 줄도 모르고 처음에 박상무를 조졌다가 조용히 철령하고.
 윤상무는 머리를 조아리며 도준영에게 일이 꼬인 경위를 설명했고.
 도준영은 이렇게 된 거 그냥 조용히 박동훈을 자르고 넘어가자 했다.
 사실 도준영한테는 박상무보다 박동훈이 훨씬 위험한 존재다.
 그의 아내와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 동훈은 준영의 대학 선배이고. 현재는 부하 직원. 그런
 그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라는 게 발각나면 끝장이다. 박동훈이 회사 직원이 아니고,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아무 문제없는 연애사인데.
 이 사실을 안 동훈의 아내 윤희도 처음에는 펄쩍 뛰었지만 어쩔 수 없다 싶었다.
 그래서 윤희의 목인 아래, 동훈을 자르기 위해 밀어붙이는 상황.
 여우같은 박상무는 자신을 자르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걸 알았기에, 청원경찰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고 돈 봉투를 들고 왔을 때, 돈 봉투가 발견된 걸 비밀에 부쳤다. 그리고 윤상무가
 날뛰는 걸 지켜봤다. ‘박동훈을 당장 잘라내야 한다. 뇌물을 먹은 놈이다. 실토했다 본인이.’
 조작질에 음해까지.

그런 뒷배경을 모르는 동훈은 그저 애만 타고.
 남자 나이 마흔 아홉에 회사 잘리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물건.
 살아남아야겠다 싶어서, 생전 누구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 없는 동훈은 의심이 가는 지안에
 대해서 다 말할 작정으로 감사실에 있는 박상무를 찾아간다.
 그랬더니 박상무가 그 문제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던져놓고 하는 말.
 “뭘 버려 임마. 이런 게 들어왔다고 갖고 오면 될 걸. 쓰레기통에서 나왔다고, 청소부가 갖고
 왔어. 착한 청소부였으니 망정이지... 그냥 꿀꺽했으면 어쩔 뻔 했어?”
 멍해진다.
 쓰레기통에서 나왔다고?
 박상무는 여태 봐왔던 동훈의 성품상 돌려줄 방도가 없어 그냥 버렸다고 생각. 그 정도로 미
 려한 남자라는 생각. 그 얘기는 병원에 있는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진짜 버렸대? 오천을? 통 크네. 그럼 안 받은 거잖아? 자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해서 없던 일로 정리됐다고.
 멍한 동훈.
 지안의 얘기가 다 사실이다.
 훔쳤다는 것도 사실이고. 버렸다는 것도 사실이고.
 자기가 가지려고 훔친 것도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차갑고 되바라진 여자애의 의외의 독심인가?
 나를 지켜봐온 건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동생 기훈이가 썰기를 박는다.
 “개 형 좋아한다. 백프로야. 좋아해.”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
 늘 졸았고, 늘 피곤했고, 늘 지겨워 죽겠었는데, 왠지 졸립지도 않고, 가슴이 뵈다. 심장이 뵈
 다. 그때 들어오는 그 애의 문자. ‘밥 사주시죠.’
 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만나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마디도 안하고 밥만 먹는다.

한 마디도 안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한 마디도 안하고 같이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동훈이가 처음으로 입을 뗐다.

“고맙다...”

사실 동훈이가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감사실에 가서 불겠다고 협박했을 때, 콧방귀도 끼지 않고 우편물 찾으러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박상무 도준영 지안 이렇게 셋이 만났었다. 도준영은 통화 중이었고. 그런데 어디선가 진동으로 벨소리가 또 울렸다.

박상무가 자기 핸드폰을 봤으나 아니었다.

통화를 끝낸 도준영은 철렁했다. 윤희와 연락하기 위해, 집에서만 갖고 있던 투지폰이 주머니에서 울리고 있는 것. 핸드폰이 두개라는 건 이중 플레이 하고 있다는 것. 이걸 박상무에게 걸리는 날엔 끝장인 거다.

그때 지안이 아무도 모르게 도준영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마치 자기 핸드폰인양 거절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그제야 박상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었고.

도준영은 등골이 서늘했다. 이 여자에 뭐란 말인가. 언제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핸드폰을 꺼낸 거지? 도발적인 행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지안은 그 투지폰으로 도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따가 비서들 퇴근하면 저한테 샌드위치 사오라고 시키세요. 보는 눈이 많아서 지금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안은 책상 위에서 충전중인 아저씨의 핸드폰이 울리는 걸 봤다. 액정엔 ‘집사람’이라고 찍혔는데 번호가 도준영의 투지폰으로 계속 왔던 번호와 똑같았다. 투지폰에는 몇 날 며칠간 이 번호 밖에 찍힌 게 없었다. 감이 왔다. 머리가 돌았다. 왜 아저씨를 잘라내려고 그런 수작을 폈는지도.

그렇게 다들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준영 대표와 단둘이 독대를 했다.

도준영은 호락호락 하지 않은 척 응대했으나, 지안은 그저 느긋하게 나갔다.

“내가 똥 뜯는 사람도 아니고,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로 하죠.”

“무슨 일?”

“윤상무가 하던 일. 아까 봤잖아요. 손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윤상무 보다 낫지 않나?”

박상무와 박동훈을 잘라내는 조건으로 한 명 당 천만원씩.

도준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다.

지안은 일이 쉬울 것 같았다.

이 아저씨는 내가 자기를 위해 돈 봉투를 훔쳐내 버렸다고 생각할 테니.

밥 사달라고 문자했더니 역시나 한 걸음에 달려왔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꾸역꾸역 먹기만 하지만 이 아저씨 마음은 방망이질 치고, 머릿속은 복잡하다. 우습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아저씨가 최대한 덤덤하게, 그러나 떨림은 백프로 느낄 수 있는 어조로 말했다.

“고맙다...”

아 이 바보 같은 아저씨.

지안은 지쳤다. 눈이 감겼다.

동훈은 지하철에서 내려 나란히 걷는데,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고, “아버지는 뭐하시고?”라고 물었다가 뒤통 당한다. “아저씨 아버지는 뭐하시는데요? 난 아저씨 아버지 뭐하시는지 하 나도 안 궁금한데, 왜 우리 아버지가 궁금할까.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는 게 빠르지? 쏜대들.” 그냥 한 말인데, 이렇게 칼 같이 내팽겨 치니 불안하기 짝이 없고, 옥해서 한마디 한다.

“그냥, 힘들어 보여서 물어봤어.”

“뭐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냥, 니 또래 같지 않아서. 상냥하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고.”

그래도 헤어지는 길에 커피믹스 한 박스와 홍시를 사서 건넨다. 회사에서 커피믹스 훔쳐가는 것도 봤고, 마트에서 돈이 모자라서 홍시를 사지 못하는 것도 봤고.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지안에게 동훈이가 불쑥 말한다.

“비밀로 했으면 좋겠는데, 니가 버린 거. 내가 버린 줄 알아.”

“밥 사요. 열 번, 한 번 샀으니까 앞으로 아홉 번.”

“그냥, 돈 주께. 괜히 말 돌아. 여직원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아저씨, 자기가 되게 매력 있는 줄 아나봐?”

울컥 솟는다. 말을 왜 이 따위로. “말 돌아!”

“얼마 줄 건데요?”

“얼마 줘?”

“천.”

그리고 뚜벅뚜벅 가버리는 지안.

저건 미친년이다.

동훈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 윤희가 ‘돈봉투’사건에 대해 묻길래 대수롭지 않은 척, 쓰레기통에서 찾았다고 말하는데, “근데 왜 당신이 버렸대?”

그 말에 굳는 동훈. “누가 그래? 내가 버렸다고?”

사실 윤희는 준영과 통화했다. 절대 동훈이가 버린 게 아니라고, 나한테는 잃어버렸다고 했다고, 분명 뭔가 있다고... 그렇게 막 통화를 끝낸 후였다.

윤희는 어쩔 수 없이, 준영이한테 물어봤다, 내가 물어볼 사람이 준영이 밖에 더 있냐, 그렇게 일단락 짓고 방에 들어가 조마조마한 가슴을 쓸어내린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강윤희...

아침부터 형한테서 문자가 쏟아져 들어온다.

‘그 여직원 출근했나, 뭐 입었나, 둘이 같이 점심 먹을 건가...’ 등등.

동훈은 실없는 소리 취급하고 말지만, 신경 쓰이는 건 사실.

출근해서 지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그런데 막상 보면 지안은 인사도 안하고 썩. 이렇게 안면 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A4용지 좀 달라고 했더니, 말도 없이 다다다 자판만 치면서 발로 서랍을 속 열어준다. 알아서 가져가라는 투. 원래 이런 애였지만, 오늘따라 왠지 굴욕적이다. 늙은 남자를 조련하는 어린 여자애에게 당하고 있는 기분. 마음이 뭔가 어그러지고 있다. 불편하다.

그런데 박상무는 동훈을 불러서 사건의 실체를 말해준다.

제보 메일에는 니가 아니라 내가 받은 걸로 돼 있었다, 처음에는 나를 자르려다가 이름이 비슷한 너한테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선 백프로 나라고만은 못하겠다, 도준영 의지가 켜다, 널 반드시 잘라내겠다는 의지가. 감오는 거 없냐, 왜 그랬을까 도준영이 왜 널! 동훈은 처음 듣는 얘기. 정말 모르겠다. 물론 도준영을 싫어하는 건 사실. 티내지 않는다고 했다만 사람 기운 뻘한데 자길 싫어한다는 것 정도는 알 거고. 그렇다고 오천씩이나 먹여서? 그럴 이유가 없다.

그때 펄떡 떠오르는 단상.

돈 봉투가 배달되기 전날에 윤상무와 회의를 했다. 회의 내내 술하게 울려대는 전화를 받아서, 동훈의 말이 끊기게 했고, 그래서 부하들 앞에서 민망했는데, 일어나서 눈알 굴려가며 은밀하게 했던 말.

“응. 응. 큰 거 다섯개.”

오천이다!

씨씨티비를 의식해 핸드폰을 얹어 댔었고, 통화하는 내내 단음절이었다. 백프로 수작질이다.

동훈은 박상무와 같이 녹화된 씨씨티비를 뒤져서 그 시간대 통화한 전화번호를 뽑아내는데 성공. 설불리 전화했다가는 농친다. 위장 문자를 보내놓고 기다리는데 답이 없다. 해서 어떻게 말할지 연습을 하고 전화를 거는데... 없는 번호라고. 그새 짹 저무린 느낌.

사실. 지안이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전날 지안은 동훈과 헤어지고 인사도 없이 먼저 가버리는 척 하면서 조용히 동훈의 뒤를 밟았다. 어느 아파트로 들어가는지,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서는지, 그리고 우편물을 뒤져 몇 호에 사는지 까지 알아내고, 우편물을 모조리 챙겨왔다. 친구 기범일 시켜 인터넷에 떠도는 박상무와 동훈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게 하고, 메일도 해킹해 열어보게 했는데 자를 만한 꺼리가 없었다.

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 박상무 방에 들어가 화분 속에 도청기를 꽂아놔었다.

그렇게 해서 박상무와 동훈의 얘기를 다 들었고.

준영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배달책의 핸드폰을 해지하도록 했다.

준영은 살 떨렸다. 박상무를 빨리 잘라내야 한다.

동훈은 자신을 자르려고 한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지안이가 인사도 없이 퇴근하는 걸 보고는, 밥 사라는 말은 그냥 한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 웬지 더 기운이 빠진다. 그런데 바로 들어오는 문자. [나와요. 밥 사요.]

약속장소까지 일방적인 통보. 도착해서 보면 제 혼자 밥 먹고 있다. 동훈에겐 눈길도 안 주고.

아는 척을 안 해도 그냥 지안이 옆에 가 앉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행동이 계면쩍고.

“원래 그렇게 인사 안 하나?”

그래도 대꾸 없고. 어색한 침묵을 깨보려고 어쩔사리 꺼낸 말들을, 차갑고 짧게 받아치는 지안을 보면서 조용히 욕한다. 나 원래 뇌물 같은 거 먹는 사람 아니다, 그 돈 가질 생각 없었다, 잠깐 고민한 건 사실이지만 먹을 생각 없었다, 너한테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무례하게 나올 건 없다, 어른한테 예의를 갖춰라...

말끝에 괜히 뿔따구가 나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전철을 타는데.
사람이 밀려들어오면서 점점 둘이 붙게 되고, 동훈은 진땀난다.
그때. 열차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리자 지안이가 동훈의 품에 혹 안기게 되고. 그대로 숨이 멎는 동훈.
동훈은 역사를 빠져나와 떨리는 맘을 들길 세라 뚜벅뚜벅.
지안에게 인사도 없이 뚜벅뚜벅 가버린다.

그러나 지안은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밀려들어오는 게 호재였다.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일제히 쏠릴 때, 동훈에게 바짝 붙어 동훈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도청 앱을 깔았다.
그리고 동훈과의 식사자리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다.
박상무가 내일 아침 중요한 손님과 약속이 있다는.

지안은 그 약속을 어그러뜨릴 계획으로 급히 움직인다. 기범을 시켜 박상무가 있는 술집에 찾아가 박상무의 술에 약을 타고, 대리기사인 척하고 접근해서 의식이 거의 없는 박상무를 태워 동해로 나르게 한다.

결국 어둡고 낮선 곳에서 깨어난 박상무. 암막 커튼을 치면 날은 흰히 밝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바다!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인가. 철령해서 시계를 보면 이미 약속엔 늦었다.
그 일로 회사는 쑥대밭이 된다.

박상무가 미팅에 불참하면서 중요한 계약이 물 건너가게 된 상황.
심지어 박상무는 동해에서 정신없이 제 차를 몰고 오는 길에 뺑소니까지.
윤상무는 잡아먹을 듯이 길길이 날 뛰고. 그리고 도준영 앞에서 쾌재를 부른다. 저 인간 엉뚱한 데서 사고 쳐서 제 풀에 자빠지게 생겼다고. 적어도 보직해임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그런데 준영은 뭔가 미심쩍다. 그런 실수를 할 박상무가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지안이가 찾아와 자기가 했음을 알리자, 준영은 지안이가 새삼 두려워진다. 거칠게 없는 아이구나.
준영은, 박상무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 뒤를 쫓을 것이라고 하자,
지안은 걱정 말라고. 자신과 연결 고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마치 조직원을 두고 일하는 듯한 니앙스.

자, 이제 박동훈만 자르면 된다. 그럼 이천만원. 그럼 광일과도 빠이빠이.
그런데 기범은 아무리 뒤져도 동훈에 대해선 어떤 꺼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앓는 소리.
도청을 해도 맨날 술 마시고, 아저씨들의 뻔한 헛짓거리 뿐.
안되겠다. 그냥 조작질 하는 수밖에.
지안은 동훈에게 전화해서 나오라고. 밥 사라고.
동훈은 형수랑 한바탕하고 우울해 있는 형을 달래고 있는 중인데.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그런데 지안은 막무가내다.

동훈은 심호흡을 하고 일어난다. 계속 엮이면 안 된다. 정리해야 된다. 자신도 안다. 유혹에 강한 사람이라 여태 사고치지 않고 살아온 게 아니라, 단지 유혹이 없었기에 별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전철 안에서 그 애와 접촉이 있는 후,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 순간적으로 키스하는 상상까지 했었다. 그 애의 살갓 냄새가 잊히지 않았다. 이러다 망한

다. 정신 차려야 한다.

동훈은 백만원을 찾아다가 지안에게 준다. 한 번에 천은 없으니 다달이 백씩 주겠다고.
밥 먹는 건 그만 두자는 의미다. 남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차단하고 싶다는 의지다. 그런 동훈의 의중을 백프로 간파한 지안이 되바라지게 말한다.

“겁나나?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 될까봐?”

동훈은 그냥 조용히 일어난다.

“그 오천. 그냥 니가 버렸다고 말해. 그게 편하겠다. 너랑 계속 엮이니, 니가 버렸다고 사실대로 말해. 나도 가질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면 되니까!”

그렇게 초강수를 두고 뚜벅뚜벅 가는 동훈. 너 따위 때문에 인생이 흔들린 순 없다.

그런데 지안이가 동훈의 뒤를 여유롭게 따라간다.

동훈은 모르는 척 가다가 결국 돌아선다.

“책잡았다고 생각하지 마. 고마운 건 사실인데. 너한테 안 끌려가. 그러니까 그만 해.”

그때. 느닷없이 동훈에게 입을 맞추는 지안!

동훈은 지안의 목덜미를 낚아채 확 밀쳐내고.

“너! 말귀 못 알아들어-?”

*4

멀리서 기범이가 둘의 입맞춤을 찍었다. 셀카 찍는 척 하면서. 우연히 둘의 키스 장면이 걸린 것처럼. 사진을 SNS에 올리고, 사내의 누군가의 시선에만 닿게 만들면 된다. 부장과 계약직 여직원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수군거리면 된다.

동훈은 지안과의 키스 후 화난 사람처럼 주체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아련한 얼굴이 된다.

속을 터놓고 지내는 오랜 친구(겸덕)에게 문자를 보낸다.

[누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누가?]

[어떤... 애가.]

[여자?]

[응.]

[... 대한민국 모든 중년 남성들을 대표해 말하겠어. ‘진정 부러워.’]

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어린 애가. 나 같은 중년 남자를 왜. 애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단념시켜야 하나.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계속 지안과의 키스 장면이 불뚝불뚝 떠올라, “아 떠발!” 조용한 사무실에서 갑자기 그렇게 터져서 사람들 이목 집중시키고.

박상무는 넉다운 돼서 실려 나갔던 술집을 찾아와 당시를 복기해본다. 그리고 대리기사에게 전화 해보는데, 술집으로 갔을 때 다른 기사가 와서 모셔갔다고, 그렇게 손님 가로채 가는 놈들 많다고...

박상무는 누가 자신을 일부러 해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 얼른 병원에 가서 피를 뽑는다. 어떤

약물이든 나올 것이다. 살면서 술 먹고 정신을 잃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미 하루가 지난 상황이라 약물이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의사의 설명.

박상무는 동훈을 만나서 완전히 당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상한 거 없었냐고 채근한다.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다.

이상한 거... 하나 있다. 어린 여직원이 자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할 말인가.

동훈은 박상무를 만나고 나니 지안이가 의심스러워 진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누가 시켰어? 나한테 접근하라고. 누가 시켰어?”

지안은 침착하게 응대한다.

“입술 달아본지가 하도 오래 돼서 그냥 대봤어요.”

이런 엠병할 녀를 봤나.

“아저씨도 인생 하도 재미없게 사는 거 같길래. 어떻게 하면 월오육백을 벌어도 저렇게 흐리멍텅하게 살까. 나 같으면 그 정도 벌면 하늘을 날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질 것 같은데. 오늘 아침은 어떻게. 눈 좀 번쩍 떠지셨나?”

지안은 그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기범에게 와서 sns에 올린 거 다 삭제하라고. 눈치 챘다고.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고.

그 뒤로 지안은 동훈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청하기 시작한다. 밤에 식당 알바를 가서도 이어폰을 끼고 동훈의 일상을 듣고, 집에서는 스피커폰으로 아예 틀어놓고 산다. 밥 먹을 때도 청소할 때도.

그런데 주말 아침,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 너는 소리까지는 들었는데, 이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에 도로 자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동훈은 전화가 울리지 마자 받고. 뭐하냐는 상대의 말에, 베란다에 앉아 햇볕 쬐이고 있다고. 쏘아지는 햇볕이 아까워서. 빨래만 말리기 아까워서. 혼자 열 일하는 태양이 고마워서.

그 말에 지안은 커튼을 열어본다. 쏘아지는 햇빛. 마당에 쪼그려 앉아 햇볕을 쬐여본다.

자를 빌미를 찾기 위해 시작한 도청. 그러나 점점 동훈의 일상을 듣는 재미가 생긴다. 중년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면이 있고, 거친 지안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말들.

동훈은 며칠 지안이 때문에 간만에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 애는 내 삶이 너무 무료해 보이길래 인공호흡 차원에서 입술을 뺐단다. 무료한 삶. 여전히 형제들과 웃고 떠들고, 회사에서는 열일하지만, 자신의 삶이 무료하다는 걸 절실히, 그리고 낭만적으로 느낀다. 그런데 그 애는 예전의 차가운 아이로 돌아갔다. 말을 걸지 않는.

임원회의에서 결국 박상무는 보직 해임되고, 지방으로 발령 난다.

그 대가로 천만원의 받은 지안은 광일에게 갖다 주고.

“이제 팔백 남았네. 어떡하니. 값을 돈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이상 나 볼 일 없으면, 나 보고 싶을 때 너 어떻게 하니? 그때 가서 없어 보이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할 건가? 이제 부터 어떻게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광일의 심기를 건드려 또 한 푸닥거리.

윤희는 지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본다.

“애 사람 죽었네.”

그 말에 철렁하는 준영.

준영은 박상무를 거침없이 잘라내는 지안을 보자 두려워졌다. 해서 윤희에게 ‘이지안’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비밀로 하고.

사건보고서를 보면,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중, 사채업자에게 할머니가 맞는 걸 보자 부엌칼로 사채업자를 찔렀다. 정당방위를 참작 받아 소년원에서 2년 복역.

그 사채업자가 광일의 아버지. 광일은 지안을 좋아했었다. 그러나 개차반이었던 아버지는 지안의 할머니를 못 살게 굴었고, 결국 지안의 손에 죽었다. 지안은 그 애비와 그 자식이라며 광일을 더더욱 멀리했다. 광일은 그 뒤로 애증이 뒤섞인 감정으로 지안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버렸다. 사랑받을 수 없으면 미움 받으리라.

지안은 광일에게 맞으면 마음이 편하다. 맞으면 맞을수록 죄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욱 광일을 흥분하게 하는 말로 성질 돋우고, 자신에게 손을 대지 않을 때면 먼저 달겨들어 주먹을 날렸다. 그 놈의 아버지를 죽였지만 후회하진 않는다. 아직도 할머니를 못살게 굴던 그 놈의 아버지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난 또 똑같이 칼을 들 것이다.

광일과 한 파란을 치르고 지친 와중에도 삼형제와 낱깄대는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때 아저씨네 집에도 한 파란이 일었다.

형이 길거리에서 시비 붙어 건장한 청년에게 흠씬 맞았단다. 동네에서 좀 논다하는 근본 없는 집구석의 아들놈이다. 소식 듣고 달려가 봤더니 형은 흥하게 얼굴이 부어있고 누워서 흘쩍이고 있다. 항상 허허거리던 형이. 이빨 빠져도 허허거리던 형이. 이유는, 하필 그 어린놈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부분에서 노모가 봤다는 것이다.

기훈은 나이 처먹고 맞고 다닌다고 죽어라 상훈을 구박을 하고는, 그 새끼 찾아내 죽여 버린다고 씩씩대고. 동훈은 행여나 큰 사고 칠까 싶어 그런 기훈을 말리느라 진땀 빼고.

하나를 막으면 또 터지고... 매번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집구석...

술 취해서는 죽고 싶다는 형에게 동훈이가 하는 말...

[살자. 아침에 눈 떠지면 그냥 살자.]

전혀 다른 공간에 다른 사람들과 있는 아저씨. 그러나 아저씨의 말들이 꼭 지안이 자신에게 하는 말 같다. 지안의 목표다. 아침에 눈 떠지면, 죽지 않고 눈 떠지면, 그냥 살아야 하는 삶. 그런데 월 오백을 넘게 버는 중년의 남자도 그런 말을 한다.

이전과 달리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동훈의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동훈은 그런 시선을 알 리 없고.

형을 때린 놈이 과일을 사들고 찾아와서는, 죄송하다고. 술 취해서 자기가 실수 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정중히 사과하며 오십만원을 내놓고 가는 바람에, 상처 났던 형의 마음도 회복되고, 그 놈에게 쌍욕을 해주면서 노모도 없었던 게 내려가고, 기훈은 저 새끼 폭행으로 고소할 까봐 무서워서 지레 깽깽 들고 왔다고 기고만장.

그렇게 다시 활기를 찾은 동훈이네 집구석.

그런데. 한 동안 할머니를 건사하느라 바빠서 실시간으로 도청을 하지 못했던 지안은 지난 시간의 녹음 파일을 듣는데, 거기에 이 사건의 전말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다.

동훈은 형을 때린 남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겁박 주는 남자에게 기죽지 않고 차분하게 말한다.

[나도 무릎을 꿇어본 적 있다. 죽고 싶게 굴욕적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다행이다 싶은 건,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무릎 꿇은 그날 저녁에도 나는 맛있는 걸 사가지고 허허거리며 집으로 들어갔다. 아무렇지 않게 똑딱 저녁밥을 먹었다. 내가 무슨 모욕을 당해도 우리 식구만 모르면 된다. 그거면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식구가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행복한 척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집구석이 그렇다. 사랑하는 내 형이 우리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 앞에서 뻔뻔했으면. 내 동생이 형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노모가 마음 아프지 않았으면... 싶다.]라는 논지로.

그리고 동훈은 자신의 집에 찾아가 형에게 사과해달라며 남자에게 돈을 주고, 부탁한다며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동훈이가 했던 말 중에 지안의 가슴에 와 박히는 말이 있다.

“식구들 앞에선 그러면 안 돼. 식구가 보는 데서 그러면, 그땐, 죽여도 이상할 게 없어. 가족은 그래.”

그 말에 눈물이 툭 떨어진다.

할머니가 맞는 걸 보고 칼을 들었던 지안.

이 아저씨가 전적으로 자신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 같다. ‘넌 죄 없어!’라고.

오십만원이 생긴 형은 신나서 동생들 데리고 술집으로 직행했고. 부어라마셔라 킬킬킬. 다시 행복해진 형을 보자 동훈은 신나서 노래까지. 월오백을 벌어도 틀어막고 살아야 하는 게 너무 많은 인생.

지안은 생각한다. 과연 나는 이 아저씨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그때. 준영의 전화가 온다.

“박동훈, 잘라. 빨리 잘라.”

*5

박상무가 보직 해임 되고 난 뒤, 회장이 슬쩍 준영에게 물었다.

“박동훈 부장, 부장 몇 년차야?”

7년차란 말에, 회장은 “이제 올라갈 순번이네?” 그랬다.

준영은 조용히 철렁했다. 박상무가 잘린 자리에 박동훈을 앉히려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회장은 박동훈을 대할 때면 애정이 듬뿍 묻어났다. 얼마 전에 오천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으로 박동훈은 완전히 통 크고 강직한 직원으로 낙점 받은 상황.

서둘러 지안에게 전화했다. 박동훈을 빨리 자르라고.

곰팡이 슬고 햇볕도 들지 않는 골방에 누워만 지내던 할머니가 지안에게 수화로 묻는다.

[하늘 맑아?] [응.] [별도 있고?] [응. ... 보려 갈까?]

산꼭대기 달동네에서 거동 못하는 할머니를 어떻게 데리고 나갈까?

지안은 마트에서 한 두 개의 물품을 사고는 계산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카트를 밀며 마트를

벗어난다. 발걸음이 빨라진다. 그때 자전거와 부딪히고. 지안이 확 넘어졌다가 얼른 일어나 그대로 카트를 밀고 간다. 다쳤을 것 같은데. 카트에서 흥시 한 팩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빠르게 가버리는 지안. 카트를 훑치는 중이다.

마트에 왔다가 그런 지안을 본 동훈은 카트에서 떨어진 뭉개진 흥시 한 팩을 주워 들고 지안을 불렀다. 이지안씨! 이지안! 불러도 못 듣고. 동훈은 보다가 길을 건너 지안을 쫓아간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올라가는 지안. 허둥지둥 쫓아가는 동훈.

그런데 놓쳤다. 동훈의 손에 들린 흥시. 지쳐서 계단에 앉아있는데, 잠시 후, 한 집에서 지안이 카트에 뭔가 잔뜩 싣고 힘들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자신이 뒷걸음질로 계단을 먼저 내려가고, 카트를 마크하며 내려오는데 위험해 보인다. 동훈이가 얼른 가서 거들어 주는데, 거들어주다가 보면, 으악! 사람이다. 할머니.

할머니가 해맑은 미소로 동훈을 본다.

동훈은 그제야 상황이 이해가 되고.

할머니를 번쩍 안아 들어서 계단 아래까지 내려준다.

지안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카트를 밀고 내려간다. 상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

그렇게 야밤에 산책을 마치고 올라오다가 보면...

계단 아래에 여전히 앉아있는 동훈.

동훈은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카트에서 할머니를 들어 안아 계단을 올라간다. 그냥 보고 있는 지안. 동훈은 문 앞에서... 문!!

방 안까지 할머니를 모셔다 놓고... 방 안을 보니 참... 그냥 나간다.

한참 내려가다가 돌아서서 지안에게... “착하다...” 한마디 해주고 간다.

지안은 그냥 보기만... 착하단 말을 처음 들어본 듯...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하고 다니는 꼴로 봐선, 말하는 꼴로 봐선, 좋은 가정에서 사랑 받고 크진 않았을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런데 웬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다. ‘넌 불쌍한 아이. 난 착한 어른’이라는 공식아래 거리낌 없이 챙겨도 되니까. 자라나는 감정을 잘라내려고 애써 밀어내지 않아도 되니까. 먼저 나서서 “밥 먹자” 당당하게 말하며 데리고 나가고. 밥 먹고 헤어질 때는 할머니 음식까지 사주고. 어느 날은 휠체어를 사들고 오고. 수발정신 발휘 중인 동훈...

지방으로 발령 난 박상무는 동훈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어서는 어떤 서류 뭉치를 찾도록 한다. 상무실에서 갑자기 짐을 뺄 때, 윤상무가 따라 붙으면서 갖고 나가도 되는 물건과 아닌 물건들을 체크했다. 도준영의 통화기록과 차량 GPS행적이 담긴 서류 봉투가 있었다. 윤상무가 뭐냐고, 좀 보자길래, 쓰레기라며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걸 찾아야 한다.

동훈은 춘대를 찾아간다. 춘대가 쓰레기통에서 돈뭉치를 발견해서 청원경찰에게 갖다 준 바람에 자신이 살았다고 알고 있는 동훈은 춘대에게 고맙다고 인사치레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춘대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더미에서 서류 뭉치를 찾고.

그리고 박상무의 지시에 따라 도준영의 통화 목록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본다.

지안은 그 사실을 준영에게 보고 한다.

며칠 전부터 준영은 지안을 쫓고 있다. 빨리 박동훈을 자르라고. 이 아저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일하고 있다는 인상은 심어줘야 한다.

준영은 통화기록으로 걸릴 건 없다고. 윤희와의 통화는 투지폰으로만 했고, 회사에서는 투지

폰의 존재를 모른다고. 가끔 공중전화를 쓰기는 했지만, 공중전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뭐.

그런데 회사 회식자리 끝물에 동훈은 준영과 우연히 만난다.

준영은 룸에서 윤상무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듯.

동훈과 준영은 늘상 그랬듯이 어색하게 인사하고 헤어지려는데, 술 취한 김대리가 느닷없이 준영에게, “박부장님이 대표님 대학 선배시라면서요. 그럼 사석에서는 선배님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석에선 직급보다 학번이 우선 아닙니까?”

동훈은 조용히 펄쩍 뛰었고, 대신 머리 조아려가며 죄송하다고.

그리고 김대리를 잡는다. 넌 오늘 날 생각해준 게 아니고, 날 더 없어 보이게 만들었다...

김대리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억울해 울먹이는 소리까지.

그만 두자 싶어 맥없이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부하들이 하는 말이 들린다.

“싸가지. 그래도 박부장님이 도대표 대학 선배데. 그냥 선배도 아니고, 같은 과에, 같이 다녔는데. 박부장님 와이프랑도 셋이 친했대며? 근데 너무 한 거 아냐?”

“솔직히 잘난 도대표 죄나, 못난 박부장 죄냐? 무조건 잘 나고 봐야 돼.”

동훈은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도청으로 다 듣고 있는 지안...

그렇게 굴욕적인 사건을 겪고도 동훈은 형과 동생이 있는 술집으로 와서는 또 속없이 허허 웃는다. 그리고는 술 취해 혼자 주절대는 소리가 들린다.

“어떤 애가... 자기 나이가 삼만살이래...”

지안이 자신 얘기다. 며칠 전에 동훈과 술 마시면서,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술을 들이키냐고 했을 때, 그래도 술이 좀 들어가면, 속이 뜨끈해지는 게, 견딜만하다고... 했었다.

그때 가만히 보던 동훈이가 그랬다.

“몇 살인데 아저씨 멘트야?”

“환생을 한 오백번쯤 했을 테니까. 매 생애 육십까지 살았다 치면. 삼천살?”

“... 삼만.”

“웁. 삼만. 지겨워. 왜 자꾸 태어나나 몰라...”

그 말에 동훈은 말없이 지안을 보다가 술잔을 들었다.

뭔가 할 말이 있었으나 접고 마는 듯한 느낌.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며, 지안과 나누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혼잣말처럼.

“난 알아. 왜 자꾸 태어나는지. 인생에 희열이 없어서 그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은 지겹기 짝이 없고... 이게 아닌데... 내 인생의 숙제야. 희열... 그걸 느껴야 다신 안 와.”

아마도 모든 것을 꽉 틀어막고 살아야 하고, 자기가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행복한 척 식구들을 건사해야 하는 쓸쓸함...

중년 아저씨의 마음이 어린 지안의 마음에 와 닿는다.

다음날. 동훈은 도준영의 핸드폰 내역을 뒤지는데, 희한한 걸 발견했다. 핸드폰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걸려 오는 일반 전화가 있어, 어딘가 싶어 걸어봤더니 수신이 불가능한 번호란다. 수신이 불가능한 번호는 뭘까...

그렇게 생각에 빠져 있는 동훈에게 지안이가 덤덤히 말한다.
“공중전화... 발신만 가능하고, 수신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지안은, 동훈으로 하여금 준영의 범죄 현장에 점점 다가가게 만든다.

걸어서 그 번호의 공중전화를 찾아온 동훈...
표정이 없는 얼굴로 바람만 맞고 있다...
아내 윤희의 사무실 앞에 있는 공중전화...
그때 윤희가 퇴근하다가 동훈을 보고 의외란 듯 다가온다. 웃으며...
황망한 얼굴로 아내를 보는 동훈....
멀리서 그런 동훈을 보고 있는 지안...

*6

회사에선 모든 직원의 통화내역을 조사한다.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적을 피해 공중전화를 이용한 걸까? 둘이 무슨 작당을 하는 걸까?
이럴 땐 대뜸 불륜을 의심하는 게 먼저지만, 설마.
동훈은 슬쩍 윤희 앞에서 준영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한다.
윤희가 못 들은 척 말을 돌린다. 기운이 다르다. 뭔가 축이 온다.

해서 다음날 그 공중전화에 들어가 도준영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대뜸... 그러나 낮게... “어. 왜?”라고 말하는 도준영.
동훈은 그냥 전화를 끊고 만다. 암담하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 며칠 전, 아내의 차를 손 세차 해주다가 이상한 종이를 발견했던 걸 기억해낸다. 모 오피스텔의 도장이 찍힌, 통행에 방해 되는 곳에 주차는 삼가 해달라는 쪽지였다. 인터넷에 쳐보니 아내의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그런 이름의 오피스텔이 있다. 하루 종일 그 오피스텔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있는 동훈.
한참을 앉아있는데, 아내의 차가 들어간다.
그리고 잠시 후, 도준영이 들어간다.
그냥 맥 놓고 보고만 있는 동훈.

술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고... 그래도 혹시나... 아내에게 전화를 건다. 통화가 된다. 괜히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빌린 전화로 준영에게 전화를 건다. 아내의 핸드폰 속에서 준영의 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맞구나. 같이 있는 게 맞구나.
통화를 끝내고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그저 조용히 술만 들이킨다.
모든 일이 좌르륵 켜진다. 박상무를 자르는 게 급선무였지만, 그리고 자신을 자르는 것도 계획에 있었던 거다. 그래야 안전하니까.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조기축구회복으로 갈아입고,
형 동생과 같이 공차는 운동장으로 가는데 옛날일이 떠오른다.
아내가 애 낳자마자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했을 때, 형과 동생은 우리 집에도 변호사 나왔다

고 신나라. 그때 간난 손주를 안고 있던 노모가 뭔가 미래를 감지한 듯한 불안한 얼굴로 하던 말.

“너 부지런히 올라가라. 여자 아무리 잘나봤자 남편 평판 밑이라고, 여잔 남자가 제 밑에 있는 꼴 보곤 못 산다. 너 부지런히 올라가.”

부지런히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운동장을 이렇게 저렇게 뛰는데 공이 자기에겐 한 번도 안 온다. 그냥 맥없이 공이 가는 데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조용히 운동장을 나가버린다. 공 차다 말고 어디 가냐는 말에, 울분에 차 버럭,

“공을 줘야 차지! 공을!”

엄한 데에 성질내고 가버린다. 뚜벅뚜벅.

새벽이 돼서야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난다. 아내가 일에 지친 연기를 하며 힘없는 소리를 낸다. 앓는 소리.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출장 간다고 또 짐을 싣는다. 형이 예전에 그랬는데. 무슨 변호사가 출장이 잦냐고. 왜 난 의심을 안 했을까? 그때 마다 도준영과 있었겠지.

동훈은 티내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아내의 구두를 닦아 놓고 나온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데, 내장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것 같다. 회사에서 도준영을 보자 식은땀까지 난다. 도저히 힘에 부쳐 책상에 앉아 있기도 힘들다. 지안은 그런 동훈을 무심을 가장하며 보고만 있다가, 비틀거리며 나가는 동훈의 뒤를 밟는다. 걱정되는 건지, 아니면 뒤집어엎는 걸 목도하려는 건지...

동훈은 병원에 가는데, 의사는 최근에 뭐 스트레스 받은 거 있냐고.

그 말에 서럽게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자꾸 꺾꺾 누른다.

결국 눈물을 줄줄 흘리며 뚜벅뚜벅 걸어간다. 준영과 아내의 오피스텔로. 그리고 주차돼 있는 준영의 차 백미러를 부숴버린다. 경보음이 울리면서 경비가 뛰어나오고, 동훈은 떨어지지 않는 백미러를 손으로 떼 내려고 용을 쓰고, 기겁하며 뭐하는 짓이냐고 말리는 경비.

웬지 준영과 윤희가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서둘러 가버린다.

잡아채는 수위를 우악스럽게 뿌리치며 가버린다.

도망가는 거다. 들키고 싶지 않다.

뒤늦게 내려온 윤희와 준영. 경비는 술 취한 사람 같다고. 신고할까요? 윤희는 됐다고. 뭔가 촉이 발동한다. 불안하다. 철렁한다. 얼른 전화를 건다.

울리는 전화를 보고 있는 동훈. 안 받으면 티 난다. 울음을 삼키고, 음악소리가 시끄러운 가게로 훅 들어가 전화를 받는다.

“어디야?”

“사거리. 기훈이랑 한잔 하는데. 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동훈이가 묻는다.

“... 언제 와?”

“... 내일 모레.”

“... 빨리 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 아는 척 하면 우리 관계는 끝난 것.

회사 생활도 힘들어진단다.

혼자 늙는 게 두려운 나이. 삶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나이.
모른 척 하자. 지나가는 바람이다. 돌아올 것이다.

지안은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듣지 못했던 동훈의 일상을 들어본다. 지하철 타는 소리, 미국에 있는 아들과 통화하면서 울컥 하는 걸 간신히 참아내는 목소리... 동훈의 생활을 고스란히 엿보는 느낌이다.

그리고 문제의 박상무를 만나는 소리.

도청 녹음 파일 속에서 박상무는 독이 올라 동훈을 다그친다.

[도준영이 이상한 거 발견했다며? 공중전화는 어떻게 됐어? 반차까지 내고 나갔었다며? 조져야 돼. 끝내야 돼 도준영 그 자식은.]

아무리 캐물어도 별 거 없다고 둘러대는 동훈.

박상무가 속이 터져 욕박지른다.

[밤 샐다며? 그럼 뭐하느라고 밤 샐는데?]

[... 졸았는데요.]라는 허무한 대답.

지안의 발걸음이 멈춰진다.

아, 이 아저씨 모른 척 하기로 했구나. 바보 같은 인간.

보고 싶었다.

누가, 왜, 자신을 자르려고 했는지, 그걸 알았을 때, 아저씨의 반응.

당장 도준영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릴 줄 알았다.

그러면 상황은 역전. 더 이상 도준영은 아저씨를 자르려고 수 쓸 수 없을 것이다.

돈은 다른 식으로 구하면 된다. 광일을 더 봐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바보 같은 이 아저씨. 아내와 도준영의 불륜을 모른 척 하기로 했다.

우는 것 같은 아저씨의 목소리. 그리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듯한 거친 숨소리. 뭔가 부수는 소리. 그리고 경비 아저씨와 실랑이하는 소리...

감정을 눌렀다가 터졌다가 정신없이 수습하는, 괴로운 동훈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내 인생도 고단하다만, 이 아저씨 인생도 참 고단하다 싶다.

그리고 다시 평상시의 동훈의 목소리가 들린다. 술집이다. 동훈이가 주인에게 묻는다.

[개, 안 왔어요?]

[누구?]

[... 출게 입고 다니는 애. ... 이쁘게 생겨서.]

그리고 문을 드르륵 여는 소리. 그리고 주인의 목소리.

[왔네. 이쁘게 생긴 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주인이 들어오는 날 보고 그런 소리를 했구나.

내가 들어오기 전에 오간 대화다.

‘출게 입고 다니는 애... 이쁘게 생겨서...’

그 말의 어조에 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묻어있다.

왜 ‘이쁘게 생겨서’라는 말에 울컥하지? 못생긴 얼굴 아닌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울컥하지?

갑자기 심장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저려온다.

*7

동훈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 게 고역이다.
그 놈의 얼굴을 봐야 하는 거며, 회의 중에 내 말을 툭툭 잘라먹어가며 끼어드는 그 놈의 애기를 꼭 참고 들어줘야 하는 거며.
퇴근해서 삼형제랑 술집에서 부어라마셔라 하다가 냉장고에서 술 꺼내오는 도중에 갑자기 동훈의 주먹이 유리창에 날아간다. 정말 앞뒤 없는 느닷없는 행동. 찌! 하얗게 변해서 흐느적거리는 유리창. 모두들 어안이 병병해서 쳐다보고.
사실, 어떻게든 살고 싶어 퇴근할 즈음에 아내에게 전화했다. 맛있는 밥집 발견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아내는 오늘도 늦는다고.
그렇게 회사에서 나오는데, 도준영이 일찍 퇴근하는 걸 봤다.
그림이 그려졌다. 둘이 같이 있을 거라는
아무렇지 않게 술 마시는 내내 동훈의 머릿속엔 영상이 제 멋대로 돌아갔다. 아내와 준영이 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둘이 침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 둘이 내 애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 그렇게 킁킁 밀려들어오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유리창으로 주먹이 날아갔다. 스스로도 놀랐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빠르게 주먹이 날아갔다.
유리창 바로 옆에서 마시던 놈들이 동훈을 쥐잡듯 잡는다. 술 잘 처먹고 뭐하는 짓이냐고.
거기에 또 무섭게 달려드는 기훈이. 어마 대구 우리 형한테!
그렇게 들러붙어 싸우고. 결국 파출소 행.

파출소에서도 “야, 제수씨 불러. 강변호사 불러.” 거드름 피우는 형과 동생.
동훈은 아내에게 전화하겠다고 달려드는 형과 동생을 말리느라 정신없고.
상대 쪽 놈들은, 니들 같은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아저씨들이 통째로 욕먹는 거라고.
그 말에 또 들러붙어 싸우고.

새벽녘이 돼서야 파출소에서 나오는 삼형제. 완전 초췌.
상훈이 슬쩍 동훈에게 묻는다.
“왜 그랬냐?”
“...”

그 놈들 앞에서는 무조건 지랄 떨었지만 뭔가 있다 싶다. 심상치 않다 싶다. 나도 모르겠다는 동훈의 말에, 애써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주는 기훈. 얼마 만에 삼형제가 셋이 나란히 경찰서에 와 본 거냐, 이십대에 오고 20년 만이다...
그러다가 호기를 부려 백미터 달리기를 해보기로 한다.
모든 남자들은 자기 인생의 백미터 최고 기록을 기억한다.
동훈은 달리다가 주저앉아 구역질을 한다. 눈물까지 난다.
토하는 척 하면서 전봇대 잡고 눈물을 닦는다.

어떤 촉을 감지한 노모. 동훈에게 말한다.
“남자 사춘기 두 번 온다. 기운이 솟을 때. 기운이 줄 때. 기운 안 줄라고 용쓰면 흉하다. 기운이 줄 땐 그냥 줄게 뉘. 용쓰지 마. 기운 주는 만큼 미운 사람도 줄어. 안쓰러운 놈만 늘어. 다 나같이 안쓰러워.”
동훈은 괜히 울컥해서 서둘러 자리를 떠버린다.

동훈이가 술집 유리창에 주먹을 날렸을 때. 지안은 준영을 찾아갔었다. 윤희와 같이 있을 거 뻔히 알면서.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모처에. 껌판 치고 싶었다. 달콤하게 그냥 즐기게 두고 싶지는 않았다. 당황하는 준영에게 지안은 보고 할 게 있다고.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왔다고. 찾는 데 좀 힘들었다고. 윤희는 뭔가 이상하다 싶지만 상냥하게 웃으며 자리를 비켜주려고 하는데, 지안이가 윤희를 보며 그랬다.

“이렇게 생겼구나... 궁금했어요. 바람피는 여자는 어떻게 생겼나?”

“너. 뭐니?”

“이지안이요.”

이지안. 자신이 조사했던 여자애. 살인전과자. 짱짱한 지안의 기운에 윤희는 일단 자리를 뜨고. 집에 들어와 준영에게 전화를 했다. “너 개랑 무슨 사이야?”

어떻게 엮인 사이인지 다 듣고. 지안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다 듣고.

“그런 짓을 왜 해? 개 위험해. 사람 죽여 본 애가 못할 짓이 뭐야. 더 나은 인생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애들이라고. 우리 사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 개한테 걸려든 거야.”

그리고 윤희는 머리를 굴린다. “개 잡을 카드가 필요해. 꿈쩍 못하게 잡을 카드.”

다음날 동훈이 출근해서 일하다가 보면,

자신의 통장에 모르는 돈이 꽂혔다. 삼백. 어이없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우왁 터진다. “어떤 새끼가 날 돈 삼백에 물 먹이려고 들어-?”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너무 뻔하기에, 들으라는 듯 버럭.

그런데 그때 간만에 출근하던 회장이 그런 동훈을 보고.

“왜 다들 저 사람한테 돈 못 맥여 안달이야?”

회장을 보필하던 준영도 당황하고.

준영은 윤상무를 쳐다보는데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는 듯 어병한 표정.

그 일로 임원진들이 준영의 방에 모여 낮은 언쟁이 오간다.

박동훈 부장 통장에 삼백은 이전의 오천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느낌. 그리고 도준영이 그 수작질의 주범일 것이라는 속내는 저 아래 숨기고, 왕상무는 점잖은 언사로 도준영의 심기를 건드린다.

도준영은 자기도 진짜 궁금하다는 듯, 모두가 있는 곳에 동훈을 나이스하게 방으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뭐 짚이는 거 없냐고 묻기까지. 속으론 떨면서. 동훈은 예의 그 억울하고 무덤덤한 얼굴로 아무 것도 짚이는 게 없다고. 도준영은 억울함 없게 한 점 의혹도 없이 깨끗이 수사하게 다고. 동훈의 어깨를 두들겨 주기까지.

그리고 다들 나가는데, 동훈은 나가지 않고 도로 앉는다. 그들이 마시던 비싼 양주를 따라 마시고. 준영은 이 사람이 뭐하는 건가 싶은데. 동훈은 조용히 말한다.

“사람 참 얼굴 안 벗어나. 대학 때 너 참 봤을 때. 딱 감 왔다. 딱 이 정도이게 생겼었어. 내가 사람은 참 잘 봐.”

“!!”

“너무 찌질하지 않냐, 삼백은?”

준영은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그 삼백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럼 오천은?”

“!!”

“그 오전. 처음엔 나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었어. 박상무를 자르는 게 급선무였지. 재신임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꼬인 거야. 이름이 비슷해서. 윤상무 하는 일들이 그래. 근데. 기회다 싶었던 거지. 내가 없다면, 넌 선배의 아내이자 부하의 아내와 바람피는 파렴치범은 안 되니까.”

뜨악한 준영.

동훈은 본론을 말한다.

내가 안단 말은 말고, 아내를 조용히 돌려보내라. 절대 내가 안단 말은 해선 안 된다. 나는 안다. 20년을 한 공간에 산 사람이라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속일 생각은 마라. 내가 안단 말은 하지 말고, 그냥 헤어져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겠기에.

내가 안다는 것까지 아내가 알면,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기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마디!

“준영아. 도준영. 우리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응? 치사하게 살지는 말자! 응?”

그렇게 퇴근해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데, 형이 혈레벌떡 온다. 혹시 니 통장에 삼백 들어왔나고. 오늘까지 주기로 한 놈이 안 줘서 쌍욕을 해댔는데, 니 통장으로 부쳤다고. 생각해보니 내가 신용불량자라 니 통장번호 알려줬는데 깜빡했었다고.

그 말에 동훈은 깔깔깔. 형을 끌어안는다. 눈물이 나게 깔깔깔.

준영에게서 박동훈 잘라내는 작전을 그만 두라는 말을 들은 지안은, “들켰구나? 근데 어떡하지? 난 천만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말해서 준영을 더욱 열 받게 만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훈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쁘게 생겨서...’라는 식의 말이 또 나올까?

동생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갠 요즘 어때? 부장님을 사모하는 어린 여직원.]

[미친 새끼.]

[형 여전히 좋아해?]

[좋아하긴 뭘 좋아해. 죽을라고.]

듣는 지안이 무안하게 동훈은 펄쩍 뛴다. 가당치도 않은 애기라는 식으로 잘라버린다.

그리고 한 참 후에 들리는 소리...

어느 가게로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차분한 동훈의 목소리...

[... 양말 있어요? 젊은 여자가 신을 건데.]

동훈은 며칠을 양말이 든 책상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다 그냥 만다. 괜한 짓이다 싫어서. 오바다 싫어서.

그리고 며칠 후, 노모의 집에서 반찬을 한 가득 받아 집으로 가다가, 지안의 집으로 돌아선다.

어차피 집에 밥 먹을 사람도 없다.

동훈은 지안의 앞에 반찬 가방을 두고는 그 위에, 작은 쇼핑백을 툭 던져둔다. 대수롭지 않은 척, “양말.” 그리고 돌아서 간다.

그렇게 가는 아저씨를 보다가 지안이 할퀴듯 묻는다.

“왜 이제 줘요?”

“!!”

“양말. 사는 거 다 봤는데. 서랍에 있는 거 다 봤는데. 왜 이제 줘요?”

멍해지면서 말을 못하는 동훈.

“왜 망설였는데? 뭘 망설였는데?”

아, 이런 미친년. 나의 어떤 심정을 캐취하자고 이렇게 도발적으로 달려드는 건가. 어찌자고. 깜빡했었다고 말하고 서둘러 돌아서 가는데, 가는 내내 떨린다. 내가 뭘 들켰나. 망설이고 설레는 걸 어떻게 들켰나. 귀신같은 기지배. 그렇다고 저렇게 대놓고 칼로 푸욱 찔러대듯이 쑥셔대는 말을 하다니. 미친 기지배...

지안은 어려서 할머니와 단 둘이 그지 같은 인생에 내팽겨 쳐지면서, 보통의 인간관계를 배워본 적도 없고, 인간관계에 정성을 쏟아본 적이 없어, 이 따위로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왜 망설였는데?’는 ‘나도 좋아해요.’라는 말이다.

*8

준영에게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은 윤희는 미친 듯이 날뛰고, 너 망하게 할 거라고 협박하고는 집에 들어와 초토화 돼서 침대에 대좌로 누워있다. 자지 않고 눈만 감고 있다는 걸 동훈은 안다. 그리고 운 듯 코가 먹은 아내의 목소리.

“어디 아퍼?”

“... 감기.”

그게 아닌 걸 뻔히 알지만 동훈은 아내에게 죽을 사다 주고.

윤희는 맥없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다가, 냉장고를 다 뒤집어엮어 청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심리상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모르는 척 그 상황을 다 지켜봐야 하는 동훈은 지안과 술 마시다가,

꿈이 뭐냐는 말에, 뜬금없이 허허거리며 말한다.

“의사가 나한테... 곧 죽는다고 했으면 좋겠어. ...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그렇게 술집을 나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가다가 동훈은 뜬금없이 셋길에서 멈춰 선다.

자긴 이쪽 길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와... 이 와중에 좀 더 빠른 길 찾아가는 노땅... 내가 이런 노땅에게 무엇을 기대했던가...

지안은 그냥 말없이 먼저 가버린다. 화난 사람처럼 두뼉두뼉.

그러나 덩덤하게 걸어가는 동훈의 머릿속엔, 그 애와의 키스가 빠르게 지나간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리어커를 밀어주면서도 그 애와의 키스가. 길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도 그 애와의 키스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요동치는 마음... 느릿한 발걸음에, 느릿한 호흡에, 느릿한 시선인데... 머릿속에선 계속 지안이 살아 움직인다.

더 빠른 길을 찾아나서, 지안과 더 빨리 헤어지려고 한 건, 머릿속은 통제할 수 없는데, 행동은 통제할 수 있기에. 어떻게든 통제해야겠기에.

그런데 다음날.

동훈의 앞에 젊은 청년 하나가 나타난다. 광일이.

지안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아서 뒤를 밟았는데, 웬 중년 남자랑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이없어 했는데, 이름이 ‘박동훈’이라고. 오천만원 상품권 봉투에 써 있던 이름. 아주 쉽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예감.

해서, 광일은 오천만원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주며, 덕의 돈 훔치려고 접근한 거다. 큰 돈 잃기 전에 떨어지셔라... 생각해주는 척. 그러나 지안에 대해서 훌쩍 껴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

그 얘기를 들은 동훈은 한 동안 멍해 있다가 조용히 춘대의 집을 찾아간다.

오천만원을 쓰레기통에서 주웠다는 청소부의 집에.

그렇게 찾아간 춘대의 집에는 지안의 졸업식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고.

대체 둘은 어떤 사이길래. 둘이 무슨 작당을 한 건가.

춘대는 차분히 모든 얘기를 해준다.

고단했던 지안의 어린 시절.

지안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지안의 엄마가 여기저기 돈을 꾸고 잠적했던 일.

딸년의 졸업식에는 오겠지 싶어서 빗쟁이들이 몰려왔었는데, 춘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끝내 지안의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춘대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안에게 꽃을 사주고 사진을 찍고 밥을 사주었다. 그렇게 그 뒤로 엮인 관계다...

그리고 오천만원에 대한 진실도 말해준다.

광일에게 벗어나고 싶어서 훔쳐냈으나, 장물이라는 걸 알고 그걸 빌미로 지안을 교도소에 보내려고 했었다. 해서 돌려놔야 했었다...

“자네 돈을 훔치려고 했던 게 사실이지만... 사실이 뭐였는지 중요한가... 내가 지안일 건사하게 된 거나, 사실에 비추면 다 말이 안 되지... 마음이 어디 논리대로 가나...”

듣고만 있던 동훈은 허리 숙여 한 마디.

“어르신. 존경합니다.”

졸업식에 지안을 쓸쓸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까지 챙겨준 춘대에 대한 감동.

그리고 광일을 찾아가 지안의 빚을 대신 갚는다.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광일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급기야 완력을 행사하려고 들고.

동훈이 슬쩍 말한다.

“미리 말해두는데... 나, 삼형제야.”

“왜? 부르시게?”

“잘 들어. 삼형제는 둘 돼서 손가락 들기 시작할 때부터 장난 아니게 싸워대. 맷집 장난 아냐. 그러다가 스무 살 되면 싸움을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알아? 아... 내 편치가 장난 아니구나. 이러다 살이나 죽거나. 누구 하나 죽겠구나.”

결국 치고 박고 싸우고.

그 끝에 광일이가 폭발하며 말한다.

“어떻게 사람 죽이고 끌랑 2년 살고 나오냐고!!”

“!!”

지안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단다. 동훈은 잠깐 흔들리나... 밀리지 않는다.

어르신 말대로 사실은 상관없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도청을 통해 들은 지안은... 아... 심장이 터지겠다.

당장 달려가 아저씨를 끌어안고 싶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이.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감정이 터진다.

술집 주인이, 재밌다는 듯이, 부럽다는 듯이, 바람난 단골손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동훈은 '그 배우자 알았을 때 겪는, 내장이 썩어나는 고통에 비하면, 보고 싶고 안달 나고, 시작되는 사랑의 감정은 뒤통수 한 대 후려 맞으면 끝날 감정'이라고 잘라 말한다. 거기에서 조용히 비웃음이 나는 지안. 별걱 별걱 들이킨다.

그리고 술집에서 나와 말한다.

“와이프 뒤통수 한 대 후려갈기지 그래요?”

동훈은 철렁하고. 애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바람피잖아요 와이프. 정신 번쩍 나게 뒤통수 한 대 후려갈겨주지 그래요?”

동훈은 동물적으로 방어하고.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왜요? 와이프 돌아왔어요? 그런가 부네?”

“!!”

“그럼... 내 뒤통수 한 대 후려쳐줄래요?”

“!!”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 느낌인지 확 온다.

지안이 거칠게 말한다.

“한 대 맞으면 끝날 감정이래매. 아저씨 안고 싶어 환장하겠는데. 때려 줘 봐요. 나도 그냥 끝내고 싶어서. 한 번만 후려 쳐줘요.”

이게 진짜 미쳤나.

“왜? 아저씨도 나 좋아요? 내가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넌.”

“넌 뭐?”

“넌 미친년이야.”

“맞아. 이렇게 늙은 아저씨를. 미친 게지. 그니까 한 대만 갈겨달라고 내 뒤통수. 정신 번쩍 나게.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좋아했나 머리 박고 죽고 싶게. 여자 한 번도 때려본 적 없어요? 없다고 했지? 때려봐. 좋네. 여자도 때려보고. 고소 안 할게요. 뭐라고 안 할게. 때려달라니까!”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동훈은 그냥 가는데, 지안이 달려와 동훈의 뒤통수를 냅다 날려버린다.

“때려. 끝내게. 안 때리면 나 좋아하는 걸로 알 거야. 동네방네 소문 낼 거야. 박동훈이 이지 안 좋아한다고. 때려.”

결국 동훈은 정말 세차게 지안의 뒤통수를 날려버린다. 지안은 앞으로 고꾸라지고.

동훈은 이게 뭔 짓인가 싶고. 미안하고.

지안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뚜벅뚜벅.

동훈은 그냥 보고만 있을 뿐.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뺨어가는 마음을 잘라내려고 미친 짓.

아내가 바람 난 걸, 누가 아는 게 제일 무서웠다.
그런데 들켜 버렸다. 정신 못 차리게 허허거리며 술을 먹고 쓰러지고 만다. 병원 입원실에서 눈을 뜨는데, 여기서 사무실이 보인다. 사무실에 있는 지안이 보인다. 내가 갖고 싶었던 여자애. 째해진다. 자기 인생도 째해진다. 지안에게 문자가 온다. 그러나 답하지 않는다. 창밖으로 보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앉아 답문자를 기다리다가... 포기한 듯 일어나... 그리고 비어있는 동훈의 책상에 조용히 앉는 지안... 마치 동훈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 듯....
동훈의 마음이 출렁인다. 저 여자애가 정말로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동훈에게 보내는 찬바람 부는 문자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애의 행동 사이의 간극.
애도 무던히 참아내고 있는 거구나.
칼로 내 마음을 푹푹 찌셔대는 저 애도,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병원에서 나와 동훈은 산사에 있는 친구 겸덕을 만나러 가고.
겸덕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생사 다 별 거 아니라는 느낌.
죽이고 싶게 미운 인간도, 끌어안고 자폭하고 싶게 좋은 인간도, 등글게 짝이는 느낌.
그렇게 겸덕을 만나 좀 편해진 마음으로 출근해서 지안을 보고.
그러나 지안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덩덤한 얼굴.
며칠 안 본 사이에 지안의 마음은 어딘가로 훌 가버린 느낌.
뒤통수 때려 달랬던 그날의 일은 별 거 아니라고.

별 거 아니라는 말에 동훈은 허하고.
그 와중에 아내 윤희가 참지 못하고 결국 도준영에게 달려가 사랑한다고, 아직 헤어질 수 없다고 터져버리고.
그걸 안 지안은... 잔인하게도 그 현장을 동훈에게 보게 만들고.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고 광일을 만나 한 푸닥거리 후,
실실 웃으며 말한다. “너나 나나 병이야. 좋아하는 사람 망치고 싶어 하는 병. 으으으.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으으으. 이젠 니가 불쌍해지네. 날 보는 거 같아서.”

아내는 미쳤다.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인다. 내 삶은 무너지는 건가.
미치겠는데. 정말 미치겠는데. 지안이 그럽고, 또 그럽고.
그러나 이제 그 애와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술을 마실 수도, 얘기를 나눌 수도, 밤거리를 걸을 수도 없고. 그런 꿈같은 시간은 다시 없고. 그 시간이 미치게 아쉬운데...
그런 감정을 꼭 누르고, 동생 만나 허허거리며 술을 마신다.
그리고 술집에서 나와 건다가 문득 멈춰서 실실거리며 동생에게 그린다.
“내 뒤통수 한 대만 때려줄래?”
눈물 나겠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지안이 아저씨한테 와서 조용히 머리를 드민다.
“뒤통수 한 대만 때려줄래요? 몇 대를 맞아야 끝나나 불라고.”

울컥 눈물 날 뻔 했다.
꼭 감정을 누르고 일어나며 말한다.
“밥 먹자.”

*10

아무 것도 약속할 게 없는 사이.
밥 먹고, 술 먹고... 그게 전부인 사이.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기로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헤어진 남녀의 관계는 수치로 남느냐, 추억으로 남느냐... 둘 중 하나다.
추억이었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가는 추억이었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동네 친구로서라도 오래오래 만날 수 있게.
그렇게라도 관계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목적 하에 동훈은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공공연하게 지안을 챙긴다. 같은 동네에 산다고.

그런데. 준영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윤희는 그대로 굳는다.
남편이 다 알고 조용히 헤어지라고 했다고.
윤희는 갑자기 꿈에서 번쩍 깬 사람처럼 굳는다.
급히 운전해 오는 내내 눈물이 쏟아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차를 세우고 내려 허리를 숙이고 꺼이꺼이 운다. 고래처럼 소리를 내며 꺼이꺼이. 으악! 불쌍한 인간. 상상이 된다. 그림이 그려진다. 나의 불륜을 알고 조용히 무너졌을 남편의 모습. 준영에게 헤어지라고 할 때 남편의 모습.

자던 동훈은 흐느끼는 소리에 눈을 뜬다.
윤희는 침대 아래서 엎드려 울고 있다. 자기를 때렸는지 검붉은 얼굴을 하고.
“왜. 왜 이렇게 등신같이 살아? 왜? 왜-?”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미안해... 미안해...” 읊소했다가... 제 정신이 아니다. “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이렇게 될지 몰랐다. 남편에게 다 까발려졌을 때 내가 이렇게 울지 몰랐다. 왜 우는 걸까? 자기 모멸감과 20년을 같이 산 남편에 대한 찔함...
서로를 붙들고 우는 두 사람...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지안...

다음날. 정신을 차린 윤희는...
준영을 정리하겠다는 말도, 당신과 이혼하겠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아무 계산이 없다. 내가 여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다 아는데. 그럼 헤어지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원했던 준영과 사는 게 맞는데. 선뜻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지 않는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동훈은 찬찬히 정리하면 된다고.

지안은, 동훈과 밥 먹고 술 마시는 ‘친한 사이’가 되기로 했지만,

저들의 부부사이가 붕합되면서 왠지 힘 빠지는 건 사실.

한편, 상무후보 공고가 붙는다. 후보 셋 중에 동훈이가 켜 있다.

부하직원들은 전부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동훈은 별 관심 없다.

윗선에서 동훈의 의향을 묻는데, 그냥 현장에 남아있고 싶다고.

그러나 준영은 바짝 긴장한다. 아무래도 회장이 추천을 한 게 마음에 걸린다. 항상 허허거리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능구렁이 같은 인간. 이러다 덜커덩 박동훈이 상무가 되는 날엔!

그런데 준영은 지안의 이상한 점을 캐취했다. 이중플레이의 행적이 보인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왜!'다. 동훈을 좋아한다. 백프로.

그걸 캐취했다는 걸 은연중에 내비치는 도준영.

지안은 '그래서요?'다. 그래서 뭐? 그쪽도 나 좋아하지 않나?

사실 도준영은 지안에게 관심이 생겼다. 나랑 똑같은 아이. 그런데 왜 내 주변의 여자들은 저그지 같은 박동훈한테 목을 맬까? 깨뭇치고 싶다. 그래서 지안에게 새로운 일을 준다.

동훈과 자라고. 그래서 잘리게.

"그게 뭐. 자는 게 뭐. 잤다고 왜 잘라?"

말은 대수롭지 않게 하지만 떨린다. 마음은 자고 싶었다.

지안의 마음이 이미 그런 식으로 흘러가 있다는 걸 아는 도준영이 지안을 흔드는 거다.

'권력을 가진 자와 힘없는 여직원과의 섹스는 권력을 가진 자의 폭력'이라고, 그래서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섹스는 해고사유라고 말하는 도준영.

동훈과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머릿속엔 도준영의 제안이 한 가득이다.

결국... 지안은... 도준영과 자버린다. 야밤에 준영의 오피스텔로 찾아가서.

알고 있었다. 도준영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그 정도 눈치썹이야.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당황하는 준영과 달리 여유로운 지안이 말한다.

그렇구나. 수치. 박동훈이 그랬지. 남녀 관계는 딱 두 가지로 나뉜다고. 추억 아니면 수치. 우린 서로를 기억할 때 아주 더럽게 기억할 거야. 걱정 마셔라. 어차피 난 삼개월 계약직. 한 달 후 자동 퇴사. 당신도 나랑 비슷한 처지. 한 달 후 어떻게 될지 몰라. 이 회사에 붙어있을지 없을지.

*11 이후

회사에서는 한창 상무 후보들을 심사 중이고.

지안은 양쪽 진영에서 미는 후보들의 뒷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서로 상대방의 후보를 헐뜯고 자 자체 조사해서 감사실에 밀고한 것 마냥 꾸며 메일을 넣는다.

양측 이사들은 감사실에서 날라 온 메일, 일명 찌라시를 본다. 자신들이 미는 후보에 대한 온갖 추태 비리 험담이 잔뜩 쓰여 있다. 서로가 서로의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별 걸 다 캐고 다녔다고 분개. 그렇게 난타전을 한참 하는데, 회장이 조용히 그린다.

"근데 왜 박동훈은 한 줄도 없어?"

조용해지는 좌중... 낭패다 싶은 얼굴들...

그렇게 동훈이 낙점 되는 분위기.

그렇게 상무가 된 것 만은 아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으리으리한 건물이 심한 진동으로 연일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물은 폐쇄조치가 내려지고, 서울시 안전관리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난감해하다가 동훈의 회사에 SOS를 쳤다. 회사에서는 동훈을 보냈고, 언론이 부실건축으로 몰아가는 와중에, 찬찬히 훑어보던 동훈은 단서를 발견했다. 입주해 있던 스포츠 센터에서 한 태보 운동. 그것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들 비웃는 분위기. 스물다섯명이 뛰었다고 그렇게 심하게 건물이 흔들리면, 부실 공사가 아니고 뭐냐. 동훈의 회사까지 싸잡아 욕먹는 분위기. 그러나 동훈은 건물 고유 진동 주파수와 사람이 뛰는 수가 맞아 떨어지면 심하게 진동할 수 있다고. 기자들 불러서 시연했고, 정말로 스물다섯 명이 빠르게 뛰자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실로 증명되면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동훈은 아니라고. 건물 옥상에 진동을 잡아주는 기계만 설치하면 된다고.

이 일로 회장은 정부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다. 시민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줘서 고맙다고. 해서 회장은 동훈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조건으로 상무 자리에 앉도록 권유했다.

결국 공고가 난다. [신임 상무, 박동훈]

준영은 좌절하고.

축제분위기인 동훈의 집구석 속에 멍한 윤희.

그렇게 한 동안 축제 분위기 속에서,

박상무가 나타난다. 쾌재를 부르며.

“잡았어!”

자신을 동해로 태워 나른 놈을 잡았다고.

박상무를 쫓아서 간 경찰서에는 기범이가 앉아있다.

동훈은 기범을 보고 철렁. 지안과 어울리던 놈이다!

“혹시 본 적 없어?”

동훈은 본 적 없다고. 그 말에 기범은 감 잡는다. 지안을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 뒤로 기범도 악악대며 변론한다.

자신은 그냥 돈이 필요해서, 지나가다가 대리기사 인터셉트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 놈이 하는 말이 다 아귀가 맞는다.

“그때 아저씨가 나보고 그랬잖아요. 동해 바다 보면서 전복 뚝배기에 소주 한 잔 해야 된다고. 나보고 동훈아! 동훈아! 그래가면서!”

멍해지는 박상무. 말이 다 맞는다. 그 즈음에 동훈과 그런 대화를 했었다.

동훈은 멍하다.

박상무를 잘라낼 작전을 필요했던 사람은 도준영 하나 밖에 없는데.

지안이가 도준영과 한 통속이라는 건가.

그런데 박상무가 동훈을 찾아와 완전히 손 털은 듯한 느낌으로 얘기한다.

내가 잡은 그 놈 아닌 거 같다...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거 같다...

그리고는 슬며시 동훈의 핸드폰에 물을 쏟고는, “어이쿠. 야, 빨리 꺼. 망가져.”

그리고 핸드폰 업소에 동훈을 데리고 간다. 핸드폰을 만지는 기술자의 손동작을 보며, 박상무와 동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술자는 도청 앱이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박상무는 동훈을 데리고 나가 상황을 설명한다.

그 놈이 하는 말이 뭔가 이상했다, 너무 정확해서 이상했다, 도청일 거라고 생각했다. 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확인해보니 도청 앱이 깔려 있던 흔적이 있었다, 갑자기 니 핸드폰의 도청 앱 지우면 우리가 간파했다는 걸 상대방이 눈치 챌 거다, 이 도청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 놈들을 잡자...

그리고 말끝에 하는 말.

분명히 너도 대상이라는 건데, 이상한 건, 넌 어떻게 상무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잘 생각해봐.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어.

동훈은 후루룩 떨린다.

지하철에서의 그 애의 행동, 자신에게 느닷없이 뽀뽀해 떨리게 했던 행동, 그리고 나와 같은 결의 심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나를 다 도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건가.

그리고 시작은 나를 자르기 위해서였다는 건가?

예전에 광일이가 한 말이 있다. 지안이가 갑자기 천만원을 갇았었다고. 아마 박상무를 잘라낸 대가였을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한 발 앞 서 박상무가 지안의 존재를 알아낸다.

기범의 통화내역을 조사해보니, 제일 많이 통화한 인물이 이지안. 계약직 여직원. 이지안 위에는 도준영일 것이다, 애와 도준영을 한 번에 잡자, 작전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동훈은 숨도 쉴 수 없다. 그저 조용히 듣기만.

박상무는 작전을 가동시킨다.

이미 '핸드폰 도청'의 얘기를 전해 들은 왕상무 일당들은, 동훈을 동석시키고, 정확하게는 동훈의 핸드폰을 동석시키고, 자기들끼리 작당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도준영을 물 먹이려는 듯한 작전. 만약 작당 내용을 도준영이 도청한다면, 자신이 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작전의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 도준영을 잡으면 된다.

그런 작전 하에 치밀하게 움직이는 박상무 무리들.

거기에 맥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동훈.

지안이 이 작전을 들었을 것이다.

준영에게 보고하고 어떤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

해서 동훈은 준영을 찾아간다.

자신의 핸드폰은 영화관에 두고. 마치 두 시간 동안 영화를 본 척. 좌석 밑에 핸드폰을 숨겨 두고. 준영에게 따져 물을 모든 것을 지안이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조용히 영화관을 빠져나와 준영을 찾아간다.

이 사단을 벌인 게 너냐, 이지안 시켜서 박상무 자르고, 나를 자르게 했냐...

결국 모든 게 사실임이 드러나고. 무너지는 아저씨.

대체 이깟 게 뭐라고, 회사 주인이 되는 게 뭐라고, 그렇게 까지 해야 했냐.

“남들 하루에 세끼 먹을 때, 열 끼 먹냐? 이러나저러나 세끼 밖에 더 먹냐 새까?”

너는 니가 지은 짓값을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준영과 헤어지고 영화관에 와서 숨겨놔던 핸드폰을 찾아가고.

지안을 만난 자리에서 뭐 했냐는 말에 영화 봤다고. 재밌었냐는 말에 즐았다고.

준영을 잡기로 한 날, 작전이 가동되는 날.

동훈은 지안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

지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준영이가 현장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간에 동훈이가 준영을 빼내면서, 현장에서 폭죽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던 박상무 무리들은 허탈하고.

이 일로 준영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박상무의 역공에 당할 뻔 했다는 것을. 지안과 자신의 관계도 들통 났다는 것을.

해서 준영은 지안에게 당분간 숨어있도록 한다. 너와 나의 관계가 밝혀지면, 너는 교도소에 갈 수 밖에 없다. 조용해 질 때까지 사라져라...

그 시각. 동훈은 핸드폰을 보고 있다.

지안이가 듣고 있을 게 뻔한 상황. 참 잘도 찾아온다 싶었지. 내가 있는 곳에.

역시나 오늘도 지안이가 찾아오고. 역시나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는 두 사람.

서로가 서로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연기.

지안은... 이렇게 헤어지는 게 예의일 것이라는 생각.

그렇게 동훈과 마지막 술자리를 파하고, 썸그라스를 끼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썸그라스 밑으로 눈물이 주룩주룩.

그 시각. 동훈은 핸드폰을 박살낸다. 다시는 박상무 무리들의 작전에 자신의 핸드폰이 사용될 수 없게.

박상무는 동훈이가 작전을 틀어지게 한 장본인이라는 걸 알고는 황당.

생각해보니, 박동훈이 이지안과 짜고 자기를 물 먹였다고 해도 말이 된다.

자기가 나간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고.

동훈은 지안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애가 타는데,

지안을 사라지게 한 인간도 동훈일 것이라고 의심받게 되는 상황.

그렇게 동훈이 물리는 분위기.

지안은 낯선 도시에서 산다.

아무렇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 동훈에게 전화를 한다.

“핸드폰 바꿨던데. 알았나? 내가 도청하는 거? ... 더 이상 목소릴 들을 수가 없잖아!!”

동훈은 그 번호로 다시 걸어보니, 수신불가란다. 공중전화다!

핸드폰을 끄고 그 번호의 공중전화를 찾아 움직인다. 자신의 위치를 알면 지안의 위치가 발각할 수 있기에. 결국 그 공중전화를 찾아내고. 하루 종일 그 앞을 서성이는 동훈.

그렇게 만나는 두 사람.

그러나 따라 붙은 인간들이 있다. 박상무가 보낸 무리들.

박상무는 그 사이에 알았다. 이지안은 도준영이 고용한 애고, 박동훈은 이지안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지안이 있어야 도준영을 끌어내릴 수 있다. 잡아야 한다.

도준영은 이지안이 없어져야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

지안을 잡으려는 무리와, 지안을 없애려는 무리들.

동훈은 그들에게 대항해서 움직이기로.

친구 검덕에게 문자를 보낸다.

[아저씨란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라는 전제가 없으면 맥을 못 추는 인간이겠지. 영화 ‘아저씨’의 원빈도 그랬다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것만큼 힘이 나는 게 또 있을까. 난 요즘 초능력자가 된 기분이다. 히어로 무비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다. 총알이 날아와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

.

.

그렇게 지안을 지키는 과정에서 동훈은 죽고...

.

.

.

난장판인 장례식장.

형제는 끌어안고 방다닥을 덩굴며 울다가, 가득 찬 화환을 보고 ‘아름답지 않냐?’ 웃었다가,

“시팔 내가 너랑 단 둘이 형제는 안 한다.”

“나도 안해 새까. 동훈이가 있었으니까 삼형제 했던 거지.” 둘러붙어 싸웠다가 또 울다가...

.

.

.

상훈의 꿈은, 삼형제가, 폼 나게 검은 슈트를 맞춰 입고, 검은 라이방을 끼고, 검은 벤츠를 타고, 동해 바다가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흥청망청 지내보는 것이었다. 그 꿈을 위해 방바닥 장판 밑에 오만원을 깔면서 이천만원을 모았다. 이천만원이 거의 모일 즈음 동훈은 갔다. 그래도 상훈은 동생과 검은 슈트를 사 입고, 보조석에 놓인 동훈의 유골함에도 검은 라이방을 끼워주고, 벤츠를 몰고, 그렇게 동해 바다에 온다.

그리고 바다를 보며 두 팔 벌려 소리친다.

“꿈은 이루어진다!”

.

.

.

지안은 윤희의 변호 덕분에 집행유예로 나오고.

.

.

.
지안은 납골당에 모셔진 동훈의 유골함을 훔쳐 나온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둔다. “혼자 안 뉘.”

.
지안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노모와 상훈과 기훈.
노모는 반찬 꾸러미를 옆에 놓고 앉아있고, 상훈은 꽃다발을 들고 있고.
지안이가 오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고.
상훈은 동훈의 영정 앞에 꽃다발을 꽂고.
지안은 노모에게 이제 반찬 그만 주셔도 된다고.
노모는 평생 누구 맥이는 거 외에는 딴 낙이 있어본 적이 없다고.
노모가 먼저 일어나고, 상훈과 기훈은 신발을 신다가, 돌아보며 지안에게 말한다.
“너... 우리랑 삼남매 안 할래?”
눈물이 그렁그렁한 지안.

해질녘.
노모가 앞서 가고,
삼남매가 된 상훈 지안 기훈. 셋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노모의 뒤를 따른다.
지안은 유골함을 안고 따르고.
상훈이가 눈은 벌게서 히죽이며 말한다.
“우리가... 돈은 없어도, 재미는 있다.”
지안을 안심시키는 말.
그렇게 노모의 뒤를 따르는 셋의 모습에서.